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文學碩士學位請求論文

신라시대 재이(災異) 발생에 대한 국가적 조치와 그 정치적 기능

National measures and their political functions against the occurrence of Disasters and Extraordinary Events(災異) in the Silla Dynasty

2021년

울산대학교 대학원
한국사·한국문화학과
신지원

신라시대 재이(災異) 발생에 대한 국가적 조치와 그 정치적 기능

지도교수 전호태

이 논문을 文學碩士 學位論文으로 제출함

2021년 12월

울산대학교 대학원
한국사·한국문화학과
신지원

申智媛의 文學碩士 學位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 양상현 (印)

審査委員 허영란 (印)

審査委員 전호태 (印)

울산대학교 대학원

2021년 12월

《목 차》

Ⅰ. 머리말 …… 1

Ⅱ. 재이 발생에 따른 신라의 국가적 조치 …… 4

1. 실질적 조치 …… 5

2. 상징적 조치 …… 9

Ⅲ. 재이 조치를 통해 알 수 있는 재이 사상의 정치적 기능 …… 17

1. 신라 상대의 재이 조치와 왕권 강화의 노력 …… 18

2. 신라 중대의 전제왕권과 재이 조치의 정치적 효과 …… 22

Ⅳ. 맺음말 …… 30

《참고문헌》 …… 32

《부록》 …… 34

ABSTRACT …… 37

《표 목차》

〈표 1〉 『삼국사기』 신라본기에서의 사열 기록 …… 10
〈표 2〉 신라시대에 개최된 백좌법회 사례 …… 13
〈표 3〉 재이 발생과 관인 교체 …… 15
〈표 4〉 신라시대 재이 발생에 대한 국가적 조치 …… 16
〈표 5〉 시기별 신라의 재이 조치 …… 17
〈표 6〉 신라 상대 왕시기의 재이 기록과 발생 빈도 …… 20
〈표 7〉 신라 중대의 이변 현상에 대한 재이 조치 …… 23
〈표 8〉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나타나는 재이 기록 …… 24
〈표 9〉 문무왕대에 발생한 화재와 사면 대응 …… 25

《사진 목차》

〈사진 1〉 유물번호 196번 목간 …… 12

《부록 목차》

〈부록 1〉 신라 상대 재이 발생과 그에 따른 국가의 후속 조치 …… 34
〈부록 2〉 신라 중대 재이 발생과 그에 따른 국가의 후속 조치 …… 35
〈부록 3〉 신라 하대 재이 발생과 그에 따른 국가의 후속 조치 …… 36

국 문 요 약

신라시대 재이(災異) 발생에 대한 국가적 조치와 그 정치적 기능

신지원

재이는 민들의 생명과 생업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왕실과 국운의 장래와 결부되므로 재이에 대한 책임을 통치자에게 물었다. 국왕은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하였다. 같은 자연 이상 현상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취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후속 대응 유무의 차이는 비일상적인 현상이 인간사회에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인식한 것에 따른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국가의 대응 조치가 행해진 재이 기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재이에 대한 국가적 조치는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실질적 조치는 재이로 인해 직접적 피해를 입은 민들에게 내리는 구제 대응으로서 진휼과 조세감면, 위로, 권농 정책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상징적 조치는 반성하는 행위를 보여주는 우회적인 대응 정책이었다. 예시로 사면, 사열, 공사 중단, 기우제와 같은 제사 등이 있다.

이들을 다시 시기별로 구분하여 각 시기마다 재이 조치의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였다. 신라 상대의 이사금시기는 대부분 농사에 피해를 끼치는 가뭄과 수해에 대해 재이 조치들이 시행되었다. 이전보다 강화된 왕권을 보인 마립간시기에는 감선과 천거 등 국왕이 주도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양상도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재이 조치가 소지마립간의 왕경 정비 정책 이후에 나타나고 있어 재이 조치의 양상 변화는 일련의 왕권 강화를 위한 노력과 관련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진평왕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진평왕이 연호를 제정한 이후부터 재이 조치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상대의 두 국왕이 실시한 재이 조치의 시기를 통해 왕권 강화의 노력과 재이 조치의 시행이 연관 있음을 알 수 있다.

강력한 왕권을 누리던 신라 중대에는 재이 조치의 실시 빈도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이변 현상에 대해서도 재이 조치를 시행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재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 강화된 결과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이 조치는 선택적이었다. 4명의 국왕들이 실시한 재이 조치 사례를 통해 시행해야 했던 정치·사회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모두 왕권 강화 혹은 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재이 조치를 실시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재이 발생이 계기로 작용하여 국왕의 시혜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당시 강조하는 충효사상을 한 번 더 부각하였다. 이를 통해 재이 조치의 정치적 기능을 확인할 수 있었고, 재이 사상이 정치사상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요어 : 신라, 삼국사기, 재이(災異), 재이 사상, 유교정치사상, 재이 조치

Ⅰ. 머리말

고대에는 자신들의 생활을 좌우하는 자연에 위대한 힘이 있다고 믿었다. 고대인들은 당시 발생한 자연 현상들을 기록하였고, 이를 재이(災異)라 부른다.[1] 재이는 재해[災]와 이변[異]으로 구분된다. 재해[災]는 인간의 사회적 생활과 인명, 재산에 직접적 피해를 끼치는 현상이다. 재해가 일어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이다. 강풍과 호우 등 기상 현상과 지진, 화산과 같은 지질 현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가 있다. 반면 인위적인 사고로 일어나기도 하는데 화재 등이 이에 속한다. 이변[異]은 하늘과 땅에서 일어난 괴이한 변고를 뜻한다. 인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불안감을 조성한다. 일식, 월식, 성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재이는 어떤 왕이 재위하고 있는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자연 현상이지만, 인간의 생명과 생업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왕실과 국운의 장래와 결부되므로 재이에 대한 책임을 통치자에게 물었다.[2] 그리고 통치자는 재이 발생이라는 외부 변수로 인해 정치·사회적 변화에 직면하였고, 역으로 이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비일상적인 자연 현상들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여겨졌기에 기록으로 남을 수 있었다. 지금까지의 재이 기록에 대한 연구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재이 기록이 남겨진 사상적 배경에 대해 고찰한 것으로, 여기서 주목되는 연구는 이희덕의 것이다.[3] 그는 재이 기록의 근원적 사상의 원류를 『서경』홍범편으로 보고, 중국정사의 오행지와 비교함으로써 재이 기록이 당대의 자연관이나 정치사상과의 관련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였다. 둘째는 국왕별로 구분하여 당시의 정치·사회적 국면을 재이와 연결시킨 연구이다. 이기봉은 가장 많은 재이 기록이 있는 성덕왕대[4]부터 경문왕[5], 원성왕[6], 헌덕·흥덕왕[7], 진성여왕[8], 혜공왕[9]시기의 재이에 따른 정치·사회적 사건과 국가 대응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때 국가 대응의 사상적 기반이 유교임을 밝히고 있다. 김승우는 성덕왕대에 당으로부터 군자국이라는 위상을 확립하게 된 배경이 국가 주도의 적극적인 재이 수습에 있다고 보았다.[10] 대당 조공외교가 재이 발생과 관련 있음을 밝힌 것은 박남수이다.[11] 유교적 입장이 아닌 불교적 관점으로 본 연구도 있다. 이호영[12]과 윤선태[13]는 봉덕사 창건과 불교신앙결사운동 등의 불사(佛事)가 성덕왕대에 발생한 재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파악하였으며, 신

---

1) 인간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자연재해와 천문 현상 등 하늘과 땅에서 발생하는 여러 현상을 포괄하며, 인간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災와 異로 구분하였다 (김석우, 『자연재해와 유교국가』, 일조각, 2006.).

2) 재이사상은 한(漢)대의 유학자인 동중서(董仲舒)에 의해 체계화된 정치사상 중 하나이다. 군주가 하늘의 도덕적 뜻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다면 하늘은 재이를 일으켜 경고한다는 내용이다.

3) 이희덕, 「三國史記에 나타난 天災地變記事의 性格」, 『동방학지』23-24, 1980 ;「韓國古代의 自然觀과 儒敎政治思想」, 『동방학지』50, 1986 ; 「新羅時代의 天災地變」, 『동방학지』82, 1993 ;「王道와 天災地變」, 『한국사연구』99-100, 1997 ;「한국의 자연관自然觀과 유교정치사상」, 『국학연구』5, 2004 ; 『韓國古代 自然觀과 王道政治』, 혜안, 1999.

4) 이기봉, 「新羅 聖德王代의 自然災害와 儒敎政治」,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5) 이기봉, 「신라 경문왕대의 정국운영과 재이」, 『신라문화』39, 2012.

6) 이기봉, 「신라 원성왕대의 재이와 정치·사회적 변동」, 『신라사학보』25, 2012.

7) 이기봉, 「新羅 憲德·興德王代의 災異와 정치·사회적 영향」, 『역사와경계』100, 2016.

8) 이기봉, 「신라 진성여왕대의 재이와 농민반란」, 『역사학연구』62, 2016.

9) 이기봉, 「신라 혜공왕대의 薦擧와 災異」, 『신라문화』51, 2018.

10) 김승우, 「신라 聖德王代 災異의 발생과 政治 運營」,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11) 박남수, 「신라 성덕왕대의 災異와 조공무역」,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12) 이호영, 「新羅中代王室과 奉德寺」, 『史學志』8, 1974.

13) 윤선태, 「新羅 中代末~下代初의 地方社會와 佛敎信仰結社」, 『신라문화』26, 2005.

선혜[14]는 살생을 금하는 것이 불교적 재이 사상에 입각한 것이라고 보았다. 위의 연구들은 재이에 대한 국가 대책의 사상적 배경이 무엇이든, 재이의 발생이 국가의 정책 및 사건에 영향을 끼쳤다는 공통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재이 별로 구분한 연구이다. 황충(蝗蟲) 혹은 가뭄 등이 발생하는 빈도와 발생 원인을 살펴보는 것으로 현상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룬다.[15] 전덕재는 여기에 국가의 대책을 덧붙였다. 유교적 천인감응설(天人感應說)에 따른 대책이 통일신라시대에 이르러 보이고 있음에 주목하여 통일신라시대에 유학이 국가 통치이념으로 자리 잡으면서 나타나는 모습으로 보았다.[16]

본 연구에서 주된 사료가 되는 『삼국사기』는 후대에 지어진 2차 사료로, 고대의 기록을 다시 취사선택하여 남겨진 결과이다. 기록 주체의 사상과 인식을 바탕으로 선택되었기에 그 기록이 의미하는 바를 분석하는 것은 유의미한 과정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나온 연구들은 백제와 고구려 멸망을 설화적으로 설명하기 위함이었다.[17]

그렇다면 재이 기록이 '왜 선택받았을까?'하는 의문이 남는다. 취사선택의 기준이 유교적 혹은 불교적 재이 사상이라면 모든 재이 기록이 재이 사상을 토대로 해석 가능한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 의문점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신라시대에 발생한 재이 기록 중 재이에 대한 국가의 대응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록들을 중점으로 보고자 한다. 같은 자연 이상 현상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취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후속 대응 유무의 차이는 비일상적인 현상이 인간사회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인식한 것에 따른다고 생각된다. 재이를 고대 재이 사상에 따라 하늘이 내리는 견책으로 인지하였고, 국왕은 진휼과 사면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함으로써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국가의 대응 조치가 행해진 재이 기록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재이에 대한 국가의 조치 양상이 시기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고, 변화 양상의 배경이 무엇인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국가적 조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신라 중대의 재이에 관한 인식과 대응을 해야 했던 정치적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재이가 정치적 명분으로 활용되었음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수많은 경험들의 축적을 통해 얻은 사유는 전승되고 기억됨으로써 상징성을 가지게 된다. 당대 사람들은 자연의 이상 현상에 대해 보편적인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삼국사기』신라본기를 통해 재이에 대한 국가적 조치의 양상을 파악하여 그에 대한 인식이 어떠하였는지 확인할 것이다. 우선 2장에서 박혁거세부터 경순왕까지 신라 왕실의 재이 조치를 분석하여 재이 조치의 종류와 양상을 정리하였다. 국가의 후속 조치로는 진휼, 사면, 제사, 조세 면제 등이 있다. 이러한 대응 조치들을 실질적 조치와 상징적 조치로 구분해 보고자 한다.[18] 실

---

14) 신선혜, 「신라 성덕왕대 禁殺生 下敎의 배경과 의미」, 『한국고대사연구』83, 2016.

15) 문태영・윤일・남상호, 「삼국시대의 황충(蝗蟲) 창궐의 빈도와 요인」,『自然科學』 13-2, 2002. ;윤순옥・황상일, 「삼국사기를 통해 본 한국 고대의 자연재해와 가뭄주기」,『대한지리학회지』44, 2009.

16) 전덕재, 「삼국과 통일신라시대 가뭄 발생현황과 정부의 대책」, 『한국사연구』160, 2013.

17) 이강래, 「고구려 멸망론의 설화적 파생」, 『한국 고대사 연구의 자료와 해석』, 사계절, 2014. ; 이강래, 「백제 멸망론의 설화적 파생」, 『한국사학보』77, 2019.

18) 국가의 대응에 대한 선행연구가 있다. 선행연구 모두 재이 기록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성덕왕대를 기준으로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이기봉은 국가의 대응을 발생 이후에 복구하는 차원의 소극적 대응과 사전 예방을 위한 적극적 대응으로 구분하였다. 박남수는 시간의 장단에 따라 단기적 대응과 장기적 대응으로 나누었고, 김승우는 직접적 대응과 간접적 대응으로 구별하였다. 본고에서는 김승우의 기준에 따랐으나 그 내용은 다르다. 직접적 대응으로는 진휼, 사면, 순행, 금살령, 기우제 등의 사례가 보이며, 간접적 대응으로는 중시 교체, 제도의 시행, 세력의 교체, 위무품 하사, 상서물의 진상 등이 속한다고 보았다. (이기봉, 「新羅 聖德王代의 自然災害와 儒敎政治」, 충남대학교

질적 조치라 함은 재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민(民)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구제한 것으로, 진휼과 조세 면제 등이 해당된다. 상징적 조치는 재이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구제 조치 이외의 것이다. 사면, 기우제와 같은 제사, 인사 변동 등을 말한다. 이는 재이가 발생한 까닭이 하늘의 경고로 인식하였기에 반성하는 목적으로 우회적인 대응 정책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

3장에서는 시기별로 구분하여 재이 조치의 변화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시기 구분은 『삼국사기』의 기준에 따라 '상대-중대-하대'로 나누었다. 본고에서는 사회의 혼란과 동요로 설명되는 하대 직전까지만 다룰 것이다. 이 중 상대는 통치자의 호칭 변화에 따라 이사금시기, 마립간시기, 상대 왕시기로 구분하였다. 상대와 중대를 각각 1절과 2절로 구분하여 왕권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이를 유지하던 시기의 재이 조치 양상이 어떠한지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신라의 재이 조치를 총 정리함과 동시에 재이 사상이 가지는 정치적 기능을 밝혀내고자 한다.

석사학위논문, 2010. ;박남수, 「신라 성덕왕대의 災異와 조공무역」,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김승우, 「신라 聖德王代 災異의 발생과 政治 運營」,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Ⅱ. 재이 발생에 따른 신라의 국가적 조치

인간의 생활과 인명, 재산 등에 직접적 피해를 끼치는 재해[災]라는 변수와 이에 연동하여 발생하는 현상들, 그리고 불안감을 주는 이변[異] 현상까지, 이들은 인간의 삶을 변화시켜 왔다. 자연이라는 것은 인간이 예측하거나 정복할 수 없는 존재였다. 일상을 깨뜨리는 재이를 극복하는 것이 인간 능력 밖의 문제였기 때문에 자연을 경외하였고, 종교와 신앙의 힘을 빌렸다.

자연은 사전적으로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아니하고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거나 우주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모든 존재나 상태'를 의미한다. 자연관은 자연에 대한 관념 혹은 견해로, 자연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자연관이 달라진다. 동아시아 문화권 내에서의 활발한 교류와 소통으로 하나의 체계적인 관점이 형성되고, 그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 동아시아 자연관이다. 동아시아 자연관의 대표적인 명제는 천인합일(天人合一)이라 할 수 있다.[19] 인간이 자연의 규율과 하나가 되는 상태로, 이 둘은 유기적 관계에 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사람이 하늘에 부응할 수 있겠는가를 사유하는 것이 동아시아 자연관이라 정리할 수 있다.[20]

한(漢)대의 대표적인 유학자인 동중서(董仲舒, B.C.176?~B.C.104)는 하늘과 밀접한 관계로서의 인간을 말하며, 더 나아가 '같은 종류(同類)'라고 칭하였다.[21] 이는 하늘과 인간이 서로 감응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하였다.[22] 동중서는 이전의 유가 사상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하려는 노력을 하였고, 음양오행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재이 사상으로 발전시켰다. 통치자가 하늘의 도덕적 뜻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다면 하늘은 재이를 일으켜 경고한다.[23] 여기서 재이는 질서가 없고 혼란한 징후를 말하며, 이를 계기로 군주는 하늘의 위력을 두려워하며 반성하였다. 따라서 재이 사상을 통해 통치자가 긍정적인 천인감응을 이끌어낼 수 있게 하였다. 유가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의 천자에게 정통성을 부여해주는 동시에 절대 군주의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도 한 것이다.[24] 재이 사상은 고대 한국에도 영향을 끼쳤다.

---

19) 유가는 하늘(天)과 인간(人)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하였다. 이때 등장한 개념이 천인상관설(天人相關說)이다. 이는 하늘과 인간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의미이다. 천인상관설과 동일한 개념으로 쓰이는 천인감응설은 하늘과 인간이 서로 통하며 하늘은 사람의 일에 관여하고 사람의 행위도 하늘에 영향을 끼쳐 서로 감응할 수 있다는 것으로, 사실상 천인상관설 중 하나의 개념이다. 이러한 논리는 춘추전국시대부터 있어 왔다. 이후 한나라 초기에 음양과 오행으로 하늘과 인간을 연결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하늘과 인간은 하나라는 사조가 생겼다. 한 대에 동아시아 문화권이 형성되었으므로 당시 체계화된 사조인 '천인합일' 사상이라 언급하였다.

20) 정재현, 「동아시아 자연관의 몇 가지 특성들」, 『동서철학연구』41, 2006, 20쪽.

21)『춘추번로』, 제41 위인자천(爲人者天), 為生不能為人, 為人者天也. 人之人本於天, 天亦人之曾祖父也. ;사람이 하늘과 같은 종류라고 보는 근거이다.

22)『춘추번로』, 제57 동류상동(同類相動), 天有陰陽, 人亦有陰陽. 天地之陰氣起, 而人之陰氣應之而起, 人之陰氣起, 而天地之陰氣亦宜應之而起, 其道一也. 明於此者, 欲致雨則動陰以起陰, 欲止雨則動陽以起陽, 故致雨非神也. 而疑於神者, 其理微妙也. 非獨陰陽之氣可以類進退也, 雖不祥禍福所從生, 亦由是也. 無非己先起之, 而物以類應之而動者也. 故聰明聖神, 內視反聽, 言為明聖, 內視反聽, 故獨明聖者知其本心皆在此耳. 故琴瑟報彈其宮, 他宮自鳴而應之, 此物之以類動者也. 其動以聲而無形, 人不見其動之形, 則謂之自鳴也. 又相動無形, 則謂之自然, 其實非自然也, 有使之然者矣. 物固有實使之, 其使之無形. ;만물은 음양오행의 관점에서 같은 부류의 것끼리 감응한다는 철학적 이론을 담고 있다.

23)『한서』권제56, 열전26, 동중서전. 天人相與之際, 甚可畏也. 國家將有失道之敗, 而天迺先出災害以譴告之, 不知自省, 又出怪異以警懼之, 尚不知變, 而傷敗迺至. 以此見天心之仁愛人君而欲止其亂也. (하늘과 사람이 서로 함께 할 때는 매우 외경심을 가질만하다. 나라에 도를 잃는 경우가 있을 때 하늘은 먼저 재해를 내려 견책해 알리고, 스스로 반성할 줄 모르면 다시 괴이한 현상을 드러내 보여 경계하고 두려워하도록 하며, 끝내 변모할 줄 모르면 마침내 큰 손상과 패망에 이르게 한다. 이로부터 하늘의 마음은 군주를 인애하여 그의 난정을 막고자 함을 볼 수 있다.)

24) 서보근, 「중국 동중서 사상과 유교 통치의 부활」,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 자

고대 한국의 국왕들도 하늘의 견책에 반성하는 의미로 다양한 조치를 취하였다. 그 중 『삼국사기』 속 재이에 대한 신라의 조치를 살펴보고자 한다.[25]

재이 발생에 대한 국가적 조치로는 진휼, 조세 감면, 사면, 제사 등이 있다.[26] 그러나 모든 재이 발생에 대해 조치가 시행된 것은 아니다. 대응 조치가 없는 재이 기록도 많이 있다. 재이 조치를 취해야했던 필요성은 무엇이었을까. 생업에 직접적 피해를 끼쳐 사회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경우이거나 재이의 발생을 하늘이 내리는 벌로 인식했을 때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시행된 재이 조치를 각각 실질적 조치와 상징적 조치로 구분해 보고자 한다.

1. 실질적 조치

가장 많이 이루어진 실질적 조치는 진휼(賑恤)이다. 진휼은 곤궁에 빠진 민들을 구제한다는 뜻으로, 무상으로 나누어주는 진급(賑給)과 가을에 환납하도록 하는 진대(賑貸)로 구분된다. 유교적 이데올로기에 따른 회유 정책 중 하나로,[27] 진휼을 통해 재이로 피해를 입은 민들을 도와주어 국왕의 덕치를 보여주었다.

진휼은 대부분 기근 때문에 이루어진다.[28] 기근의 원인은 다양하다. 자연 현상 때문일 수도 있고, 인위적인 사건도 원인이 될 수 있다. 자연적 기근은 가뭄, 홍수 등과 같은 기후의 이상과 해충, 전염병 등이 주요 원인이다. 한편으로 인위적 기근의 가장 큰 원인은 보통 화재 또는 전쟁이다.

1-가. 여름 5월에 천정군(泉井郡), 비열홀군(比列忽郡), 각련군(各連郡) 등 세 군의 백성이 굶주렸는데, 창고를 열어 진휼하였다.[29]

'1-가'의 경우 기근의 원인이 되는 기상 이상 현상이 보이지 않으므로 전쟁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30] 기근으로 인해 진휼을 받게 된 지역은 총 세 군데로 지명이 구체적으로 등장한다. 이들은 각각 함경남도 문천과 원산지역, 함경남도 안변지역, 그리고 강원도 회양 일대로, 모두 본래 고구려 땅이었던 곳이었다. 고구려 멸망 후 기근이 일어나자 창고를 열어 진휼을 베푸는 모습은 고구려 유민을 포섭하려는 의도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재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국가적 시스템이 구축되어있었기 때문에 재이가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될 수 있었다.

1-나. 봄 정월에 많은 백성들이 굶어 죽었으므로 한 사람에게 하루 벼 3되씩을 나누어주기를 7월까지 계속하였다.[31]

료집』, 2013, 63쪽.

25) 신라본기의 재이 기록들 중 재이 발생에 따른 사후조치가 곧바로 등장하여 인과관계가 확인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재이 발생과 조치 시행의 내용이 동시에 등장한다거나 같은 달에 이루어지는 기록이 그 대상이다.

26) 재이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였지만, 어떤 재이가 발생했을 때 이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관행이 유형화되어 있지 않았다.

27) 정동준, 「경제적 측면에서 본 고대사회의 진휼」, 『한국고대사연구』 99, 2020, 116쪽.

28) 신라본기를 기준으로 재이로 인한 진휼이 총 24건이다. 그 중 3건(재해, 홍수, 화재)을 제외하면 모두 기근에 의해 진휼이 이루어졌다.

29) 『삼국사기』, 권제6, 신라본기6, 문무왕 9년, 夏五月, 泉井·比列忽·各連等三郡民饑, 發倉賑恤.

30) 이기봉, 앞의 논문, 2016, 14쪽.

1-다. 제33대 성덕왕 신룡 2년 병오에 흉년이 들어 인민들의 굶주림이 심하였다. 이듬해 정미 정월 초하루(707년)부터 7월 30일까지 백성을 구제하기 위해 곡식을 나누어 주었는데, 한 사람에 하루 3승(升)으로 하였다. 일을 마치고 계산해보니 모두 30만 5백 석이었다.[32]

1-라. 9월에 왕도의 백성이 굶주리니, 조 33,240석을 내어 진휼하였다.[33]

그렇다면 진급의 규모는 어느 정도였을까. 위의 성덕왕과 원성왕대의 기록을 통해 당시 어느 정도의 식량을 지급하였는지 알 수 있다. 성덕왕대의 진급을 알 수 있는 사료는 '1-나'와 '1-다'이다. 각각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기록으로 몇 명의 사람들에게, 얼마만큼의 양을, 언제까지 나누어 주었는지 알 수 있다. 한 사람 당 하루 3되(升)씩 7개월 동안 주었고 총 지출액은 300,500석이었다. 원성왕 시기에는 일인당 할당된 양과 그 기간을 알 수 없지만 총 33,240석이 분배되었다. 두 사례만을 두고 보면 식량 지급 기준은 고정되어 있지 않았다. 피해의 규모나 재정적 여력에 따라 변동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34]

1-마. 백성이 빈한하여 다른 사람의 곡식을 취한 경우 흉년이 든 땅에 있는 자는 이자와 원금 중 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도 되며, 풍년이 든 곳에 있을 경우에는 올해 곡식이 익어 수확할 때까지 단지 원금만을 갚고 이자는 갚을 필요가 없다.[35]

진급 이외에 빌려주고 환납하도록 하는 진대도 진휼의 한 방법이었다. 진대는 문무왕의 669년 하교(下敎)에서 찾을 수 있다. 흉년이 든 땅에 있는 자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도 되고, 풍년이 든 경우에는 원금은 갚고 이자는 갚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진대가 행해졌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식량을 주거나 빌려주는 진휼 외에 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진행된 조치가 있다. 조세 면제가 그것이다.

2-가. 5월에 나라 서쪽에 큰 홍수가 나서 수해를 입은 주현(州縣)의 1년 조세와 공물의 부담을 면제해 주었다.[36]

2-나. 가을 7월에 북쪽 변경 하슬라에 가뭄이 들고 황충해가 있어 흉년이 들고 백성들이 굶주렸다. [이에] 죄수를 살펴서 사면하고 1년 동안의 조세와 공물을 면제하여 주었다.[37]

2-다. 여름 5월에 나라 서쪽에서 큰 홍수가 났다. 사자를 보내 수해를 입은 주군(州郡)의 인민을 위로하고, 1년 동안 조세를 면제하였다.[38]

---

31) 『삼국사기』, 권제8, 신라본기8, 성덕왕 6년, 六年, 春正月, 民多饑死, 給粟人一日三升, 至七月.

32) 『삼국유사』, 권제2, 기이2, 성덕왕, 第三十三聖德王神龍二年丙午, 歲禾不登人民飢甚. 丁未正月初一日至七月三十日, 救民給租, 一口一日三升爲式. 終事而計三十万五百碩也.

33) 『삼국사기』, 권제10, 신라본기10, 원성왕 2년, 九月, 王都民饑, 出粟三萬三千二百四十石, 以賑給之.

34) 정동준, 앞의 논문, 2020, 105쪽.

35) 『삼국사기』, 권제6, 신라본기6, 문무왕9년, 其百姓貧寒, 取他穀米者, 在不熟之地者, 子母俱不須還, 若在熟處者, 至今年收熟, 只還其卒, 其子不須還. ■■三十日爲限, 所司奉行.

36) 『삼국사기』, 권제2, 신라본기2, 나해이사금3년, 五月, 國西大水, 免遭水州縣一年租調.

37) 『삼국사기』, 권제3, 신라본기3, 나물이사금42년, 四十二年, 秋七月, 北邊何瑟羅旱·蝗, 年荒民飢. 曲赦囚徒, 復一年租調.

위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국왕들은 1년 동안 조세 면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위의 기록처럼 홍수나 흉년 등 재해가 발생했을 때이며, 두 번째는 즉위 직후이다. 성덕왕[39]과 진성여왕[40]은 즉위 직후에 사면과 조세 면제라는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민심을 살폈다. 여기서 진성여왕 원년에 시행된 조세 면제는 재이 발생과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진성여왕이 즉위하기 한 해 전, 가뭄으로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즉위 의례의 후속조치임과 동시에 흉년에 대한 국왕의 시혜였다고 할 수 있다.

'2-다'를 보면 조세 감면과 함께 수해를 입은 민들을 위로하고 있다. 아래의 기록은 조세 감면이 아닌 다른 조치와 함께 수행된 위로의 기록들이다.

3-가. 겨울 10월에 일선계(一善界)에 행차하여 재해를 당한 백성들을 위문하고 곡식을 차등 있게 나누어 주었다.[41]

3-나. 가을에 나라 서쪽에서 가뭄이 들고 황충이 있어서, 도적이 많았다. 왕이 사자를 보내 이를 안무(安撫)하게 하였다.[42]

3-다. 8월에 기근으로 도처에서 도적이 일어났다. 겨울 10월에 왕이 사자에게 명하여 백성들을 안무하게 하였다.[43]

단순히 '위로하다' 혹은 '안무하였다'에서 그치지 않고 진휼을 했다거나 조세를 감면해주었다는 다른 재이 조치 내용이 함께 등장한다. 국왕의 명으로 행해진 위로는 다른 구제 조치와 수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44]

국왕은 피해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피해 지역에 직접 행차하거나 사신을 파견하였다. '3-가'의 사례가 국왕이 직접 피해 지역에 방문한 유일한 사례이며, 대부분 사신을 파견하는 양상이다. 그 중 '3-다'의 사례는 가뭄이 위로의 계기라고 명확히 말할 수 없다. 도적이 발생할 정도로 8월의 기근이 심하였지만 국왕이 사신 파견을 명한 것은 그로부터 두 달 뒤인 10월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선 사례들을 통해 기근과 사자 파견 간의 연관성을 추정할 수 있다.

조세 감면과 더불어 역(役)을 중단하는 것도 재이 발생에 대한 또 다른 조치 사항이었다.[45] 궁궐 혹은 궁실 수리, 성벽 쌓기 같은 경우는 국가의 공역이었기에 재이가 발생했을 때 중단하곤 했다.

4-가. 2월에 궁궐을 수리하고 있었는데, 비가 오지 않아서 곧 중단하였다.[46]

---

38)『삼국사기』, 권제10, 신라본기10, 헌덕왕6년, 夏五月, 國西大水. 發使撫問經水州郡人民, 復一年租調.

39)『삼국사기』, 권제8, 신라본기8, 성덕왕원년, 秋七月, 聖德王立. 九月, 大赦. 增文武官爵一級. 復諸州郡一年租稅.

40)『삼국사기』, 권제11, 신라본기11, 진성왕원년, 秋七月, 真聖王立. 大赦, 復諸州郡一年租稅.

41)『삼국사기』 권제3, 신라본기3, 소지마립간 5년, 冬十月, 幸一善界, 存問遘災百姓, 賜穀有差.

42)『삼국사기』 권제10, 신라본기10, 원성왕 4년, 秋, 國西旱·蝗, 多盜賊. 王發使安撫之.

43)『삼국사기』, 권제8, 신라본기8, 흥덕왕 7년, 八月, 飢荒, 盜賊遍起. 冬十月, 王命使安撫之.

44) 정동준, 앞의 논문, 2020, 103쪽.

45) 요역(徭役)은 궁 혹은 성 등을 쌓기 위해 국가가 백성의 노동력을 징발하는 형태이다. 이를 재이 발생을 이유로 중단한다는 것은 민들을 위해 시행한 현실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재이로 인한 피해를 직접 입은 민들에게 행한 조치가 아니기에 상징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조치이기도 하다.

4-나. 왕의 정교(政敎)가 밝으면, 비록 풀 언덕에 땅 금을 그어서 성으로 삼아도 백성이 감히 넘지 못하고, 가히 재앙을 씻어서 복이 될 것이나, 정교가 밝지 못하면, 비록 장성이 있더라도 재해를 없앨 수 없을 것입니다.[47]

'4-가'를 보면 흘해이사금은 궁궐 수리 중에 비가 오지 않아 중단하였다. '4-나'의 문무왕 경우에는 승려 의상(義相)의 조언에 따라 축성(築城) 계획을 중단하였다. 민들의 노동력으로 행해졌기에 재이 발생으로 민생에 어려움이 생기면 궁궐 수리 및 축성 등을 중단하였다. 재이 발생이 건축이라는 구체적인 국정에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48] 고구려의 봉상왕의 경우에는 흉년으로 백성들이 괴로워하던 중에 궁실 수리를 진행하여 신하 창조리로부터 간언을 들었다. 그러나 문무왕과 다르게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폐위 당하였다.[49]

또한 흘해이사금은 가뭄으로 농사가 잘 되지 않았던 지난번과 달리 토지 상태가 좋으니 농사에 집중하도록 명령하는 등 고대사회에는 농업이 최우선의 과제였다.[50] 재이의 발생은 직접적으로 생업에 피해를 끼쳤기에 권농 정책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5-가. 22년(438) 여름 4월에 우두군(牛頭郡)에 산골 물이 세차게 쏟아져 50여 가의 집이 떠내려갔다. 경도(京都)에 큰 바람이 불었고 우박이 내렸다. 백성들에게 우차(牛車)의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다.[51]

눌지마립간대에는 우차 사용법을 알려주었다.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여겨지는 고구려의 덕흥리 고분벽화에서도 묘주(墓主)가 우차를 타고 있는 모습이 발견된다. 이를 통해 5세기에는 운송용으로 우차의 보급이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차 사용법을 알려준 것이 여러 재이의 발생과 명확한 관련성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홍수와 대풍, 우박 모두 농업에 피해를 주는 재이들이기 때문에 우차의 보급이 농경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미 중국에서는 전국시대부터 우경을 이용한 농업 기술이 발달되어 있었기에 그 영향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52]

---

46)『삼국사기』, 권제2, 신라본기2, 흘해이사금 5년, 二月, 重修宮闕, 不雨, 乃止.

47)『삼국사기』, 권제7, 신라본기7, 문무왕 21년, 王欲新京城, 問浮屠義相, 對曰, "雖在草野茅屋, 行正道即福業長, 苟爲不然, 雖勞人作城, 亦無所益." 王乃止役. ;『삼국유사』, 권제2, 제2기이, 문무왕 법민, 王初即位置南山長倉, 長五十步, 廣十五步, 貯米穀兵器, 是爲右倉, 天恩寺西北山上是爲左倉. 別本云建福八年辛亥築南山城, 周二千八百五十步. 則乃真德王代始築而至此乃重修爾. 又始築富山城, 三年乃畢, 安北河邊築鐵城. 又欲築京師城郭旣令真吏. 時義相法師聞之致書報云, "王之政教明, 則雖草丘盡地而爲城, 民不敢踰, 可以潔災進福, 政教苟不明, 則雖有長城災害未消." 王於是▣罷其役.

48) 이기봉, 「統一新羅時代 災異와 政治·社會 變動」,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36쪽.

49)『삼국사기』, 권제17, 고구려본기5, 봉상왕 9년, 八月, 王發國內男女年十五已上, 修理宮室. 民乏於食, 困於役, 因之以流亡. 倉助利諫曰, "天災荐至, 年穀不登, 黎民失所. 壯者流離四方, 老幼轉乎溝壑. 此誠畏天憂民, 恐懼修省之時也. 大王曾是不思, 駈饑餓之人, 困木石之役, 甚乖爲民父母之意. 而況比鄰有強梗之敵, 若乘吾弊以來, 其如社稷·生民何. 願大王熟計之." 王愠曰, "君者百姓之所瞻望也. 宮室不壯麗, 無以示威重. 今國相蓋欲謗寡人, 以干百姓之譽也." 肋利曰, "君不恤民, 非仁也, 臣不諫君, 非忠也. 臣旣承乏國相, 不敢不言, 豈敢干譽乎." 王笑曰, "國相欲爲百姓死耶. 奚無後言." 助利知王之不悛, 且畏及害, 退與羣臣同謀廢之, 迎乙弗爲王. 王知不免, 自經, 二子亦從而死. 葬於烽山之原, 號曰烽上王.

50) 『삼국사기』, 권제2, 신라본기2, 흘해이사금 9년, 九年, 春二月, 下令, "向以旱災, 年不順成. 今則土膏脉起, 農事方始. 凡所勞民之事, 皆停之."

51)『삼국사기』, 권제3, 신라본기3, 눌지마립간 22년 二十二年, 夏四月, 牛頭郡山水暴至, 漂流五十餘家. 京都大風雨雹. 教民牛車之法.

52)『국사관논총』제13, 삼국시대의 재정, 사유제와 토지제도

5-나. 봄 2월에 영을 내리기를, “농사는 정치의 근본이며, 먹는 것은 백성이 하늘로 여기는 바이다. 여러 주(州)와 군(郡)은 제방을 수리하고 완성하며, 농사지을 들판을 넓게 개척하라.”고 하였다. 또 영을 내려 민간에서 금은(金銀)과 주옥(珠玉)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였다.[53]

5-다. 3년(859) 봄에 곡식이 귀해 백성이 굶주리자, 왕이 사신을 보내 구휼하게 하였다. 여름 4월에 교서를 내려 제방을 튼튼하게 수리하고 농사에 힘쓰도록 하였다.[54]

우차 보급 이외에 제방(堤防) 등 관개시설 확충도 일종의 권농 정책이었다.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에서 권농은 치국(治國)의 근본이었기에 삼국시대 초기부터 관개시설들이 축조되었다. 관개시설을 확충하기 전의 상황을 알 수 있는 기록은 ‘5-다’이다. 봄에 기근이 일어나자 국왕은 민들을 위한 구제를 시행하였다. 반대로 재이 발생 전의 방비책으로써 제방을 수리한 경우도 있었다. 파사이사금은 불의의 사태를 대비하여 농사와 양잠을 권하고 무기를 연마하라는 내용의 영(令)을 내렸다.[55] 앞으로 일어날 기근에 대한 대비책으로써 제방 수리를 명하였다.

2. 상징적 조치

상징적 조치는 피해를 입은 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었지만, 하늘의 경고에 반성한다는 구실을 갖춘 국가의 대응을 말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사면이 있다. 재이 사상을 체계화한 동중서는 형벌이 법도에 맞지 않으면 사악한 기운이 생겨 위아래의 조화를 이루지 못해 재이가 발생하게 된다고 보았다.[56] 이에 따라 재이가 발생하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죄수들을 다시 조사하는 등 사면을 시행하였다.

신라시대에 재이 발생을 계기로 이루어진 사면은 총 17건이다.[57] 그 중 8건이 가뭄에 의한 사면이다. 가뭄 이외의 재해로 인한 사면이 6건이고,[58] 이변에 의한 사면이 4건이다.

6-가. 여름 4월에 홍수가 났다. 죄수들을 살펴 사형의 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사면해 주었다.[59]

6-나. 7년 봄 3월에 가물었으므로 왕이 정전에서 [거처하기를] 피하고 평상시의 반찬 가짓수를 줄였으며, 남당(南堂)에 나아가서 몸소 죄수(罪囚)를 심사하였다.[60]

6-다. 여름 4월에 영묘사(靈廟寺)에 불이 났다. 대사(大赦)를 실시하였다.[61]

---

53)『삼국사기』, 권제1, 신라본기1, 일성이사금 11년, 十一年, 春二月, 下令, “農者政本, 食惟民天. 諸州郡修完堤坊, 廣闢田野.” 又下令, 禁民間用金銀珠玉.

54)『삼국사기』, 권제11, 신라본기11, 헌안왕 3년, 三年, 春, 穀貴人饑, 王遣使賑救.. 夏四月, 教修完隄防, 勸農.

55)『삼국사기』, 권제1, 신라본기1, 파사이사금 3년, 三年, 春正月, 下令曰, “今倉廩空匱, 戎器頑鈍, 儻有水旱之災·邉鄙之警, 其何以禦之. 宜令有司, 勸農桑·練兵草, 以備不虞.”

56)『한서』, 권56, 전26, 동중서전(董仲舒傳), 刑罰不中 則生邪氣 邪氣積於下 怨惡畜於上 上下不和 則陰陽繆盭而妖孽生矣. 此災異所緣而起也.

57) 사면은 17건이지만 사면의 계기가 되는 재이는 18건이다. 내해이사금 15년의 사면은 일식과 가뭄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58) 이에 해당하는 재해 현상은 홍수, 기근, 우박, 장기간의 비, 화재, 지진으로 각 1건씩 총 6건이다.

59)『삼국사기』, 권제1, 신라본기1, 지마이사금 3년, 夏四月, 大水. 慮囚, 除死罪餘悉原之.

60)『삼국사기』, 권제4, 신라본기4, 진평왕 7년, 七年, 春三月, 旱, 王避正殿, 減常饍, 御南堂親錄囚.

6-라. 총장(總章) 2년(669) 2월 21일 새벽 이전까지 오역(五逆)을 범하여 사형죄에 해당하는 자 이하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들은 죄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모두 풀어주도록 하라. 이전에 사면을 받은 후에 죄를 범하여 작(爵)을 박탈당한 자는 모두 옛 작에 의거하여 회복시킨다.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다만 그 몸만 풀어주되, 돌려 줄 재물이 없는 경우 추징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62]

'6-가'부터 '6-다'까지의 기록처럼 대부분 사면 기록은 단순히 '죄수를 심사하였다' 혹은 '사형의 죄를 제외하고 사면해주었다'로 쓰여 있다. 사면에 대한 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은 '6-라'의 669년 하교(下敎)이다. 오역(五逆)의 죄로 사형 받은 죄목 이하의 죄인들은 석방하고, 관직 회복도 보장하고 있다. 또한 남의 것을 훔친 자는 풀어주고 징수의 기한을 두지 않았다. 사면이 단순히 몸만 풀어주는 것을 넘어 사회적 지위 회복과 경제적 부담도 축소시켜주었던 것이다.

두 번째 상징적 조치로 사열(査閱)이 있다. 군대 사열은 수렵과 활쏘기 관람 등과 함께 대표적인 군사 의례 중 하나이다. 국왕의 군력을 대내외적으로 내세우는 것이었으므로 군사 의례는 국왕의 권위 및 권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63]

<표 1> 『삼국사기』 신라본기에서의 사열 기록

연번	시기(왕)	날짜(음)	사열 거행 장소	사열 거행 전 상황
1	파사이사금	94년 08월	알천(閼川)	같은 해 2월, 가야 물리침
2	일성이사금	138년 07월	알천	
3	나해이사금	200년 9월1일	알천	일식(日蝕) 발생
4	나해이사금	220년 07월	양산(楊山) 서쪽	
5	미추이사금	281년 09월	양산 서쪽	같은 해 2월, 조묘(祖廟) 방문
6	실성이사금	415년 07월	혈성(穴城) 들판	
7	자비마립간	463년 07월	?	같은 해 2월, 왜인 물리침
8	소지마립간	486년 08월	낭산(狼山) 남쪽	같은 해 4월, 왜인의 침범
9	문무왕	674년 08월	서형산(西兄山) 아래	같은 해 7월, 대풍(大風) 발생
10	문무왕	674년 09월	영묘사(靈廟寺) 앞길	
11	효성왕	741년 04월	?	8개월 전, 반역 시도 있었음
12	선덕왕	782년 07월	시림(始林) 벌판	
13	애장왕	804년 07월	알천	
14	흥덕왕	834년 09월	서형산 아래	

61) 『삼국사기』, 권제6, 신라본기6, 문무왕 6년, 夏四月, 靈廟寺災. 大赦.

62) 『삼국사기』, 권제6, 신라본기6, 문무왕9년, 自總章二年二月二十一日昧爽已前, 犯五逆罪死已下, 今見囚禁者, 罪無小大, 悉皆放出. 其前赦已後, 犯罪奪爵者, 並令依舊. 盜賊人, 但放其身, 更無財物可還者, 不在徵限. ;669년의 하교는 고구려 멸망 이후 내리는 교서로 승전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사면의 배경에는 세 달 전의 화재도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문무왕대에 발생한 화재는 총 3건으로, 이 이후 사면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666년의 사면 조치에 따라 662년과 669년 사면 또한 화재 발생과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장에서 다루겠다.

63) 채미하, 「신라의 軍禮 수용과 왕권」, 『한국사연구』 149, 2010, 108쪽.

<표 1>을 보면 신라본기에서 사열 기사가 총 14건 등장한다. 그 중 재이의 발생이 사열 거행의 원인이 되는 경우는 나해이사금 1건, 문무왕대의 2건, 총 3건이다. 나해이사금대의 기록에서 9월 초하루 경오(庚午)에 일식이 있었고, 크게 사열했다는 내용이 등장한다. 이는 재이 발생과 사열이 관련 있음을 보여주는 기록으로,[64] 이후 문무왕대의 2건의 사열도 재이 발생을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문무왕대 674년의 대풍은 황룡사 내 불전(佛殿)에 피해를 끼쳤다.[65] 대풍 발생 이후 서형산 아래, 영묘사 앞길(前路)에서 두 차례 군대를 사열하였다. 문무왕대에는 사열식을 2번 거행하였는데, 모두 674년이다. 신라본기에서의 사열 기사가 총 14건인 것에 비하면 그 수가 많다. 또한 일 년에 2번 이상 사열한 경우는 문무왕대가 유일하다.[66] 기존 연구에서 서형산 아래에서의 사열은 김유신의 사망 이후 본격적인 대당전쟁을 위해 귀족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보았다.[67] 그렇다면 김유신의 죽음과 대토의 반란 직후가 아닌 '왜 일 년 후에 사열을 진행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 이에 대한 답은 대풍, 즉 재이 발생에 있다. 군사 의례가 왕권 강화와 그 위엄을 보여주기 위한 행사라면 황룡사 불전이 무너진 것에 대한 민들의 불안함을 잠재우기 위해 사열을 진행했을 것이다. 황룡사 불전에 모셔진 불상은 장륙불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장륙불상은 황룡사구층목탑과 진평왕의 옥대와 함께 신라 삼보(三寶) 중 하나이다. 그리고 진흥왕의 죽음을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장륙불상이 보관된 공간에 피해가 생겼다면 민들의 불안감이 없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떠한 재이로 인해 민심이 등을 돌릴 수도 있으므로 국왕은 강력한 왕권을 선보임으로써 민의를 챙겨야했다. 그러므로 문무왕은 두 번의 군대 사열로 한 달 전의 대풍에 대해 대응하였다고 할 수 있다.

불안해하는 민심을 지키기 위해 의례(儀禮)를 보이기도 하였다. 재이로 생업이 불안정해지면 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었다. 이에 따라 민들에게 위안을 주는 종교·신앙적 방안이 필요했다. 대표적인 방식이 제사 의례였다.

그 중 하나가 비를 바라는 기우제이다. 고대 농업사회에서 가뭄은 치명적이었기에 가뭄의 원인을 군주의 부덕을 원인으로 보고, 왕을 교체하거나 죽이는 풍습이 있었다.[68] 이후 왕은 기우제를 통해 가뭄을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여준다.

7-가. 7년(253) 5월부터 7월까지 비가 오지 않아, 왕이 조묘(祖廟)와 명산에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니 곧 비가 왔다. 흉년이어서 도적이 많았다.[69]

7-나. 여름에 크게 가물었으므로 시장을 옮기고 용을 그려 비 내리기를 빌었다.[70]

7-다. 6월에 크게 가물어 왕이 하서주(河西州) 용명악의 거사(居士) 이효(理曉)를 불러 임천사(林泉寺) 연못가에서 비 내려주기를 빌게 하였더니, 곧 비가 열흘 동안 내렸다.[71]

---

64) 『상서』 탕서에서 탕왕이 걸왕의 학정(虐政)에 시달린 백성들의 한탄을 언급하면서 "이 해는 언제 없어질까? 내 너와 함께 모두 망했으면 한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해를 권력을 지닌 왕으로 상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해를 가리는 일식(日蝕)은 왕에게 불리한 현상으로 인식되었다.

65) 『삼국사기』, 권제7, 신라본기7, 문무왕 14년, 秋,七月, 大風, 毁皇龍寺佛殿.

66) 남지영, 「신라 문무왕과 서형산의 공간적 함의」,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22쪽.

67) 남지영, 위의 논문, 2012, 36쪽.

68) 『삼국지』, 위서30, 동이전, 부여, 舊夫餘俗, 水旱不調, 五穀不熟, 輒歸咎於王, 或言當易, 或言當殺.

69) 『삼국사기』, 권제2, 신라본기2, 첨해이사금 7년, 自五月至七月不雨, 禱祀祖廟及名山, 乃雨. 年饑, 多盜賊.

70) 『삼국사기』, 권제4, 신라본기4, 진평왕 50년, 夏大旱, 移市, 畫龍祈雨.

71) 『삼국사기』, 권제8, 신라본기8, 성덕왕 14년, 六月, 大旱. 王召河西州龍鳴嶽居士理曉, 祈雨於林泉

기우제의 양상은 크게 제사와 주술 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 '7-가'와 '7-다'는 제사 의례의 모습을 보여준다. 국왕이 직접 지내기도 하고, 거사(居士)를 불러 의례를 거행하기도 하였다.

다음은 '7-나'와 같은 주술행위이다. 시장 옮기기[徙市]와 용 그리기[畫龍]가 있다. 시장을 옮기는 행위는 동중서의 『춘추번로(春秋繁露)』에서도 목격된다.[72] 시장을 10일 동안 남문 밖으로 옮기고, 5일이 지나면 남자들의 출입을 금지시켰다는 내용이다.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양을 누르고 음을 돋게 하는 의도이다.[73] 다음은 용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농경사회에서 물은 중요한 요소이기에 수신인 용 또한 신앙의 대상으로 여겼기 때문이다.[74]

이외에도 목간을 이용한 주술 행위가 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곳이 창녕의 화왕산성이다.[75] 화왕산성 연못지에서 출토된 목간 중 2개의 목간이 기우제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된다. 각각 유물번호 173번과 196번이다. 173번 목간은 6면으로 다듬어져 있다. 그 중 2면에 '용왕(龍王)'으로 보이는 단어가 있다. 뿐만 아니라 사람 형상을 한 196번 목간에도 뒷면에 '용왕'이라는 글씨가 발견되어 목간이 기우제의 제물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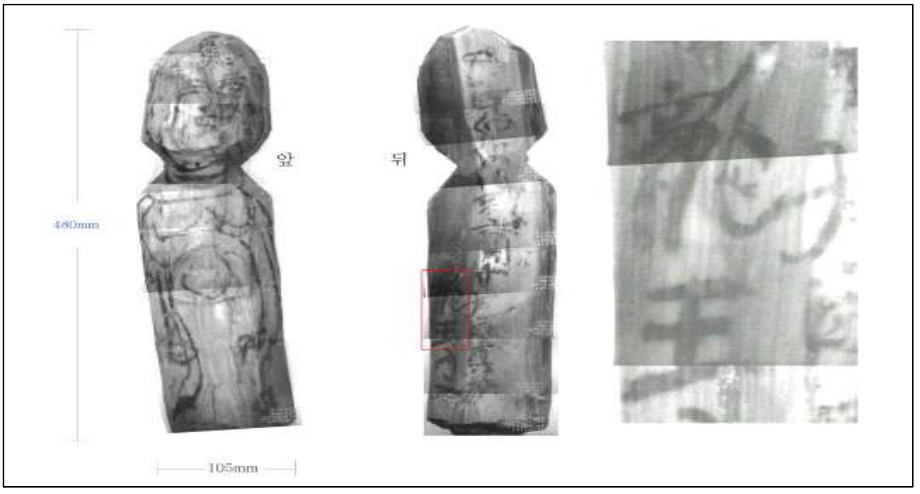

사진 2. 유물번호 196번 목간 (출처: 김재홍, 위의 논문, 2009.)

새겨진 글 외에 이 목간 유물들이 기우제와 관련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들이 있다. 바로 쇠못과 발견 장소이다. 양기(陽氣)를 상징하는 남성의 성기나 사람의 신체에 쇠못을 찌르는 것은 비를 내리게 하는 주술 행위의 일종이다.[76] 비슷한 예로 토룡(土龍)을 만들어 덮어두었다가 의례를 진행할 때 가리개를 치우는 경우가 있다.[77] 토룡이 햇빛을 보게 하여 고통스럽게 만드는 행위로,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승천하게 되면 비가 내린다는 것이

寺池上, 則雨浹旬.

72) 『춘추번로』, 권16, 제74편, 求雨, 季夏禱山陵以助之. 令縣邑十日壹徙市, 於邑南門之外. 五日禁男子無得行入市.

73) 송기호, 「가뭄과 홍수」, 『대한토목학회지』 58, 2010, 62쪽.

74) 『삼국사기』, 권제1, 신라본기1, 박혁거세 60년, 秋九月, 二龍見於金城井中. 暴雷雨, 震城南門. ;유리이사금 33년, 夏四月, 龍見金城井. 有頃, 暴雨自西北來.
용이 비를 내리게 해주는 수신으로서의 면모를 알 수 있는 기사이다.

75) 김재홍, 「창녕 화왕산성 저수지 출토 목간과 기우제」, 『한국목간학회 학술대회』, 2009.

76) 김재홍, 앞의 논문, 2009, 30쪽.

77) 『춘추번로』의 제74편 求雨에 계절에 따라 기우제를 위한 토룡의 수와 크기, 방향 등을 정해두었고, 춤추는 사람의 수와 복장 등을 명시하고 있다.

다.[78] 사람 모형의 목간에 쇠못을 찔러둔 것도 주술 행위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일종의 폭로의례(暴露儀禮)이다. 이에 더하여, 목간들이 연못지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우물 혹은 연못에서의 용왕 제사는 화왕산성에서 뿐만 아니라 (전)인용사지(傳仁容寺址)에서도 찾을 수 있다.[79] 인용사지 내부의 한 우물에서 목간이 발견되었는데 전면에 '대용왕중백(大龍王中白)'라고 쓰여 있어 제사 대상이 용왕임을 알 수 있다. 수신(水神)인 용왕을 대상으로 하는 제사라면 물과 관련된 것이며, 비가 오길 바라거나 혹은 우물 물이 풍부해지길 기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불교식 의례를 통해 재이 발생을 극복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7-다'에서 거사(居士)가 기우제를 진행하였다는 것이 그 중 하나이며, 불교적 의례 행사인 백좌법회(百座法會)도 열렸다.[80] 백좌법회란 칠난(七難)[81]이 발생하면 진행하는 『인왕경』 근거의 호국의례 행사이다.[82]

<표 2> 신라시대에 개최된 백좌법회 사례

개최 목적	개최 횟수(건)	시기(왕)
불법 강설 목적	2	진흥왕[83], 진평왕[84]
병세 치료	2	선덕여왕[85], 헌강왕[86]
재이 발생	2	성덕왕, 혜공왕
즉위 의례	4	헌강왕[87], 정강왕[88], 진성여왕[89], 경애왕[90]
총	10건	

78) 최종성, 「용부림과 용부림꾼 :용과 기우제」, 『민속학연구』6, 1999, 197쪽.
이와 비슷한 사례로 『고려사』원종1년에 큰 가뭄이 오자 왕은 양산을 쓰지 않고, 양반들은 모자 쓰는 것을 금지하였다. 자학하는 행위를 통해 하늘의 연민과 비를 부르려는 의도가 담겨있다.

79)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傳仁容寺址 출토 木簡 검토」, 『전 인용사지 발굴조사보고서1』, 2013, 460-465쪽.

80) 백좌법회는 백좌강회, 뱁좌법석, 백고좌법회, 백좌도량, 인왕회, 인왕(경)도량, 인왕백좌도량 등 다양하게 불린다. 이 법회는 『인왕반야경』을 강독하는 도량의식으로, 법회를 통하여 내란과 외란을 막고 나라 안팎으로 평안하여지기를 빌기 위해서 베푸는 것이었다. 이에 더하여 『인왕반야경』 속 반야의 지혜에 입각하여 국왕이 그 나라를 통치할 때 평안한 나라가 전개될 수 있다는 뜻이 잠재되어 있다.

81) 불교에서 제시하는 일곱 가지 재난이다. 해와 달의 운행이 도를 잃고 빛을 잃는 일월실도난(日月失度難), 28수가 도를 잃는 성수실도난(星宿失度難), 큰 불이 이는 재화난(災火難), 홍수가 지는 우수난(雨水難), 태풍 부는 악풍난(惡風難), 가뭄이 드는 항양난(亢陽難), 사방으로부터 적병과 도적이 일어나는 악적난(惡賊難)을 이른다.

82) 김복순, 「신라의 백고좌법회」, 『신라문화』36, 2010, 97쪽.

83)『삼국사기』, 권제4, 신라본기4, 진흥왕 33년, 冬十月二十日, 爲戰死士卒, 設八關筵會於外寺, 七日罷.

84)『삼국사기』, 권제4, 신라본기4, 진평왕 35년, 秋七月, 隋使王世儀至皇龍寺, 設百高座, 邀圓光等法師, 說經.

85)『삼국사기』, 권제5, 신라본기5, 선덕여왕 5년, 三月, 王疾, 醫禱無效, 於皇龍寺設百高座, 集僧講仁王經, 許度僧一百人.

86)『삼국사기』, 권제11, 신라본기11, 헌강왕 12년, 夏六月, 王不豫, 赦國內獄囚, 又於皇龍寺設百高座講經.

87)『삼국사기』, 권제11, 신라본기11, 헌강왕 2년, 二年, 春二月, 皇龍寺齋僧, 設百高座講經, 王親幸聽之.

신라시대에 열린 백좌법회는 총 10회로, 그 중 성덕왕대와 혜공왕대에 개최한 백좌법회는 재이 발생과 관련 있다. 『삼국사기』에서 706년(성덕왕 5)의 기근으로 진휼을 하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삼국유사』에서는 진휼뿐만 아니라 봉덕사를 창건하고, 7일 동안 인왕도량을 베풀고, 사면을 행했다고 한다.[91] 여기서 인왕도량은 백좌법회의 또 다른 명칭으로 재이로 인해 백좌법회를 개최했음을 알 수 있다. 재이 발생과 법회 개최가 동시에 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덕왕의 사례를 통해 혜공왕대의 백좌법회 개최 계기를 재이 발생으로 볼 수 있다.[92] 779년(혜공왕 15) 3월에 지진이 일어나 집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었으며, 같은 달에 금성이 달에 들어갔다. 곧이어 백좌법회를 열었다는 기록이 등장하는데 이때의 백좌법회는 연이은 재이로 인해 개최한 법회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법회는 종교적 위로에서 더 나아가 구휼의 역할도 하였다.[93]

재이를 하늘이 국왕에게 내리는 견고(譴告)로 인식하였기에 국왕 스스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천거(薦擧) 및 관인(官人) 교체와 같은 인사 변동도 그 중 하나이다. 이는 고대 중국에서도 나타나는 조치이다. 유덕자(有德者)를 기용하지 않은 탓에 재이가 발생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94]

8-가. 가을 7월에 가물고 황충의 피해가 있었다. 여러 관리들에게 명하여 백성을 다스릴 만한 재주가 있는 사람을 각기 한 명씩 천거하도록 하였다.[95]

8-나. 여름 5월에 황충의 재해가 있었고 가뭄이 들었다. 백관들에게 명해 각자 아는 인물들을 천거하게 했다.[96]

신라본기에서 천거 기록은 3건 찾을 수 있다. 147년의 일성이사금대 천거[97]를 제외한 2번의 천거 모두 황충해와 가뭄의 피해로 인한 것이었다. 중시 혹은 상대등의 교체도 비슷한 이유로 실시되었다.

---

88)『삼국사기』, 권제11, 신라본기11, 정강왕 2년, 二年, 春正月, 設百座於皇龍寺, 親幸聽講.

89)『삼국사기』, 권제11, 신라본기11, 진성여왕 1년, 設百座皇龍寺, 親幸聽法.

90)『삼국유사』, 권제2, 기이2, 경애왕, 第五十五景哀王即位同光二年甲辰二月十九日, 皇龍寺說百座說經. 兼飯禪僧三百, 大王親行香致供. 此百座通說禪教之始.

91)『삼국유사』, 권제2, 기이2, 성덕왕, 第三十三聖德王神龍二年丙午, 歲禾不登人民飢甚. 丁未正月初一日至七月三十日, 救民給租, 一口一日三升爲式. 終事而計三十万五百碩也. 王爲太宗大王刱奉德寺, 設仁王道場七日, 大赦. 始有侍中戢.

92)『삼국사기』 권제9, 신라본기9, 혜공왕 15년, 十五年, 春三月, 京都地震, 壞民屋, 死者百餘人. 大白入月. 設百座法會.

93) 박미선, 「불교 수용 후 신라의 자연재해와 불교적 대응」, 『역사와 경계』 120, 2021, 13쪽.

94)『후한서』, 권제103, 지13, 오행1, 沖帝永熹元年夏, 旱. 時沖帝幼崩, 太尉李固勸太后(及)兄梁冀立嗣帝, 擇年長有德者, 天下賴之, 則功名不朽. 年幼未可知, 如後不善, 悔無所及. 時太后及冀貪立年幼, 欲久自專, 遂立質帝, 八歲. 此不用德. ;『후한서』, 권제103, 지13, 오행1, 世祖建武五年夏, 旱. 《京房傳》曰:「欲德不用, 茲謂張, 厥災荒, 其旱陰雲不雨, 變而赤, 因四陰. 眾出過時, 茲謂廣, 其旱不生. 上下皆蔽, 茲謂隔, 其旱天赤三月, 時有雹殺飛禽. 上緣求妃, 茲謂僭, 其旱三月大溫亡雲. 君高臺府, 茲謂犯, 陰侵陽, 其旱萬物根死, 有火災. 庶位逾節, 茲謂僭, 其旱澤物枯, 為火所傷.」是時, 天下僭逆者未盡誅, 軍多過時.

95)『삼국사기』, 권제3, 신라본기3, 소지마립간 19년, 秋七月, 旱·蝗. 命羣官, 舉才堪牧民者各一人.

96)『삼국사기』, 권제9, 신라본기9, 혜공왕 5년, 夏五月, 蝗·旱. 命百官各舉所知.

97)『삼국사기』, 권제1, 신라본기1, 일성이사금 14년, 十四年, 秋七月, 命臣寮, 各舉智勇堪爲將帥者. ; 신료들에게 지혜롭고 용기 있는 사람을 장수로 천거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나 전후 맥락을 알 수 있는 기록이 없어 천거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표 3> 재이 발생과 관인 교체

시대	시기(왕)	날짜(음)	변동 원인이 되는 재이	인사 변동
중대	문무왕	670년 12월	토성변, 지진	지경 물러남
	경덕왕	745년 05월	가뭄	유정→이찬 대정
	경덕왕	754년 08월	황충해	조량 물러남
	경덕왕	763년 08월	계절에 맞지 않는 개화	상대등 신충, 중시 김옹 물러남
하대	원성왕	791년 10월	대설	종기→대아찬 준옹
	원성왕	794년 02월	지진 (+ 태자의 죽음[98])	숭빈→잡찬 언승
	원성왕	797년 09월	황충해, 홍수, 산사태	지원→아찬 김삼조
	헌덕왕	814년 08월	바람과 안개	헌창 시중 임명
	흥덕왕	827년 08월	태백견주(太白見晝), 가뭄	영공 물러남
	흥덕왕	831년 01월	지진	우징→이찬 윤분
	효공왕	902년 03월	서리	효종 시중 임명

위의 <표 3>은 중시 혹은 상대등의 임면 기록과 그 이전에 발생한 재이를 정리한 것이다. 『상서』 홍범편에 근거하여 관인의 교체와 재이 발생이 인과관계로 설정되었기 때문이다.[99] 국왕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퇴출된 한 승상(漢 丞相) 공광(孔光)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재이와 관인 교체는 재이 사상에 따른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100] 그렇기에 같은 시기에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표에 수록하지 않은 성덕왕[101], 흥덕왕[102], 문성왕[103]의 사례도 재이에 대한 조치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다. 725년(성덕왕 24)과 844년(문성왕 6)은 재이가 발생한 후에 바로 인사 교체의 기록이 보이는데 둘 사이에 얼마의 시간차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이다. 833년(흥덕왕 8)의 사례는, 10월에 역병이 들어 많은 민들이 죽었고 한 달 후인 11월엔 시중 윤분(允芬)이 물러났다. 이 세 가지 경우 모두 재이의 발생이 직접적 계기인지는 명확히 알 수 없다. 그렇지만 재이 발생 바로 다음에 물러났다는 기록이 등장한다는 점과 그 이전에 재이로 중시(시중)나 상대등이 교체되는 일이 있었기에 추정 가능하다.

이외에 정전(正殿)을 피하거나 반찬가짓수를 줄이는[減膳] 등 왕 본인에게 책임을 묻는

98) 원성왕 10년 2월에 지진이 일어나고, 태자 의영이 사망하고, 시중 숭빈이 물러나 언승이 시중이 되었다는 기록이 연속으로 등장한다.

99) 이에 대해 이희덕은 중시의 임면과 재이 기록의 연결은 중국의 재이사상에 따른다고 밝혔다. 중국의 재이사상이 정치권력의 교체 근거로 쓰이기 때문이다. 한 대 이래로 재이 발생에 대한 삼공(三公)의 책면이 관행을 이루는 것이 통일신라(신라 중대 이후)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았다. ; 이희덕, 앞의 논문, 2004, 24-25쪽.

100) 이희덕, 「한국의 자연관과 유교정치사상-삼국 및 신라를 중심으로」, 『국학연구』 5, 2004, 25쪽.

101) 『삼국사기』, 권제8, 신라본기8, 성덕왕 24년, 夏四月, 雹. 中侍宣宗退, 伊湌允忠爲中侍.

102) 『삼국사기』, 권제10, 신라본기10, 흥덕왕 8년, 冬十月, 桃李再華. 民多疫死. 十一月, 侍中允芬退.

103) 『삼국사기』, 권제11, 신라본기11, 문성왕 6년, 春二月甲寅朔, 日有食之. 大白犯鎭星. 三月, 京都雨雹. 侍中良順退, 大阿湌金茹爲侍中.

조치들이 취해졌다. 국왕의 부덕으로 인해 재이가 발생했다고 여겼기에 책기(責己)의 의미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신라본기에서는 3번 등장하는데 모두 가뭄으로 인한 것이었다.

9-가. 봄과 여름에 가물었으므로 왕이 스스로를 책망하여 평상시에 먹던 반찬 가짓수를 줄였다.[104]

9-나. 7년 봄 3월에 가물었으므로 왕이 정전에서 [거처하기를] 피하고 평상시의 반찬 가짓수를 줄였으며, 남당(南堂)에 나아가서 몸소 죄수의 정상을 살폈다.[105]

9-다. 봄과 여름에 가물어 농작물을 거둘 수 없게 되었다. 왕이 정전(正殿)을 피하고 음식의 가짓수를 줄였으며, 내외의 옥수(獄囚)를 사면하니, 가을 7월에야 비가 왔다.[106]

국왕 그리고 왕실은 재이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대응 조치를 보여야 했다. 생업에 지장이 생기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은 국가의 존립까지 영향을 미치기에 국가 주도의 조치는 필수적이었다. 이러한 조치는 사회·경제적인 이유 이외에 정치와도 관련이 있다. 민본주의를 주창하는 유교 정치사상에서 '민심이 곧 천심(民心卽天心)'이기 때문이다. 어떠한 재이로 인해 민심이 이동하여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국왕은 이를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여 민의를 챙겨야했다.

이상으로 신라시대의 재이 발생에 대한 국가의 조치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시대별로 구분하자면 아래의 <표 4>와 같다. 그 변화 양상 속에 어떠한 시대적 배경이 깔려있는지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다.

<표 4> 신라시대 재이 발생에 대한 국가적 조치

재이 조치		상대	중대	하대	총계
실질적 조치	진휼	13	4	7	24
	조세 감면	2	·	1	3
	위로	2	1	3	6
	공사 중단	1	·	·	1
	권농 정책	1	·	·	1
	계	19	5	11	35
상징적 조치	사면	9	6	2	17
	사열	1	·	·	1
	제사	3	3	2	8
	인사 교체	1	6	8	15
	정전 피함	1	·	1	2
	반찬가지 줄이기	2	·	1	3
	포상	·	1	·	1
	계	17	16	14	47
	총계	36	21	25	82

104)『삼국사기』, 권제3, 신라본기3, 소지마립간 14년, 十四年, 春夏旱, 王責己減常膳.
105)『삼국사기』, 권제4, 신라본기4, 진평왕 7년, 七年, 春三月, 旱, 王避正殿, 減常饍, 御南堂親錄囚.
106)『삼국사기』, 권제10, 신라본기10, 흥덕왕 7년, 七年, 春夏旱, 赤地. 王避正殿, 減常膳, 赦內外獄囚, 秋七月乃雨.

Ⅲ. 재이 조치를 통해 알 수 있는 재이 사상의 정치적 기능

재이 사상은 국왕이 왕도정치를 행하게끔 해주는 견제 장치였다. 하늘로부터 명을 받은 천자(天子)의 행위에 따라 하늘이 감응한다는 인식의 바탕에는 천명사상이 깔려 있다. 동중서는 "신(臣)이 듣기로 하늘의 도리가 국왕의 사명(使命)을 크게 받는 것이다. 반드시 인력(人力)이 아닌 스스로 도달하는 능력으로 이를 수 있는데 이것이 천명을 받았다는 증거이다."라고 하였다.[107] 하늘의 뜻을 대행하는 천자, 즉 국왕은 하늘로부터 정통성을 인정받았다. 그런 국왕이 실정(失政)을 한다면 하늘은 재이를 통해 꾸짖고 경고하였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치자들은 재이의 발생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였다. 선덕왕이 죽고 후사가 없자 그의 친척 김주원(金周元)을 왕위에 세우고자 하였는데 마침 알천의 물이 넘쳐 건너오지 못하였다. 이를 두고 "국왕의 자리는 사람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에 결정되는 것이다"며 김경신(金敬信)을 왕으로 세워 원성왕으로 즉위하였다. 이처럼 통치자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행위를 정당화하는데 재이를 활용하였다.

또한 신하가 국왕에게 간언을 할 때에도 하늘의 권위를 빌렸다. 756년(경덕왕 15), 상대등 김사인(金思仁)이 재앙을 빌미로 정치의 잘잘못을 극론하는 글을 올렸고 경덕왕은 이를 받아들였다.[108] 혜공왕대에는 지진이 연속하여 발생하자 상대등 김양상(金良相)이 정치를 극론(極論)하였다. 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극론 직전에 두 번의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재이를 근거로 국왕의 실정을 언급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하늘로부터 통치권을 부여받은 국왕이 재이라는 자연 이상 현상에 대해 펼친 조치들을 2장에서 살펴보았다. 『삼국사기』 시기 구분에 따라 세분화 해보면 아래의 <표 5>와 같다.

<표 5> 시기별 신라의 재이 조치

시대	상대			중대	하대
	이사금시기	마립간시기	상대 왕시기[109]		
기간 (년)[110]	330	150	155	125	155
재이 조치 건수 (건)	18	11	7	20	25
5년 당 재이 조치 건수[111]	0.27건	0.37건	0.23건	0.8건	0.8건

5년을 기준으로 재이 조치가 몇 번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면 신라 중대 이후로 급격히 증가하는 모양새이다. 특히 중대에는 재이 조치가 수적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피

107) 『한서』, 권제56, 열전26, 동중서전, 臣聞天之所大奉使之王者, 必有非人力所能致而自至者, 此受命之符也.

108) 그러나 이듬해 관직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보아 경덕왕의 정책을 비판하다 축출된 것으로 보인다.

109) 일명 중고기라고 하는 시기와 비슷하다. 중고기라고 명명하지 않는 이유는 『삼국유사』의 시대 구분이기 때문이다.

110) 계산하기 쉽게 대략적인 기간(5의 배수)으로 산정하였다.

111) 재이 조치 건수 ÷ {기간(년)÷5년}, 국가의 재이 조치가 5년에 몇 번 이루어지는지 계산한 값으로, 소수점인 경우에는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

해를 주지 않는 이변 현상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 유의미하다. 그 이유를 시대적 배경 속에서 보고자 한다. 현상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각 시대와 사회에서 재이 사상이 담당했던 정치·사회적 역할을 함께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1. 신라 상대의 재이 조치와 왕권 강화의 노력

(1) 이사금시기와 마립간시기

유학이 수용되기 이전에도 재이는 인간의 생업에 많은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관측 기술이 있었고, 적게나마 기록으로 남겨졌다. 그 기록을 통해 고대의 통치자들의 역할을 알 수 있다. 벌휴이사금은 바람과 구름을 점쳐 홍수와 가뭄 및 그 해의 풍흉을 미리 알 수 있었고,[112] 나해이사금이 즉위하자 계속 오지 않던 비가 내려 민들을 기쁘게 하였다.[113] 이처럼 이사금시기의 통치자는 재이를 다스리는 주술적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하늘과 연결된 존재로서 통치자는 재이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조치들을 취하였다. 대부분 농사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가뭄과 수해에 대해서 진휼과 사면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때의 조치들은 재이 사상에 따른 반성의 행위라기보다 민심의 수습이나 노동력 확보 등 사회적인 측면이 더 컸을 것으로 이해된다.

이 시기에 주목해볼 사례가 있다. 나해이사금대의 일식 기록이다. 일식이라는 이변 현상에 대해 사열과 사면 조치를 취한다. 태양은 하늘을 관장하는 존재로, 천인합일사상에 따라 일식이라는 재이가 국왕의 문제로 치부되었기 때문이다. 동해의 연오랑과 세오녀가 일본으로 건너가면서 해와 달이 빛을 잃는 변괴가 생겨 일월제(日月祭)를 지낸 것도 같은 연유이다.[114]

이 설화에 등장하는 일자(日者)는 일식과 같은 재이에 대해 풀이하여 그 의미를 점치는 역할을 한다. 일자는 이후 등장하지 않다가 5세기 말, 소지마립간대에 일관(日官)으로 등장한다.[115] 일자에서 일관으로의 변화는 국가로의 편입이기에 왕권이 이전보다 강화되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116]

김대문의 주석[主]에 의하면 마립(麻立)은 말뚝의 방언으로, 왕[干]의 말뚝 아래에 신하

---

112)『삼국사기』, 권제2, 신라본기2, 벌휴이사금 원년, 伐休尼師今立. 姓昔, 脫解王子仇鄒角干之子也. 母姓金氏, 只珍內禮夫人. 阿達羅薨, 無子, 國人立之. 王占風雲, 預知水旱及年之豐儉, 又知人邪正, 人謂之聖.

113)『삼국사기』, 권제2, 신라본기2, 나해이사금 원년, 奈解尼師今立. 伐休王之孫也. 母內禮夫人. 妃昔氏, 助賁王之妹. 容儀雄偉, 有俊才. 前王太子骨正及第二十伊買先死, 大孫尚幼少, 乃立伊買之子, 是爲奈解尼師今. 是年, 自正月至四月不雨, 及王即位之日大雨, 百姓歡慶.

114)『삼국유사』, 권제1, 제1 기이, 第八阿達羅王即位四年丁酉, 東海濱有延烏郎・細烏女夫婦而居. 一日延烏歸海採藻, 忽有一巖, 負歸日本. 國人見之曰, 此非常人也, 乃立爲王. 細烏恠夫不來歸尋之, 見夫脫鞋, 亦上其巖, 巖亦負歸如前. 其國人驚訝, 奏献於王, 夫婦相會, 立爲貴妃. 是時新羅日月無光. 日者奏云, 日月之精, 降在我國, 今去日本, 故致斯怪. 王遣使求二人, 延烏曰, 我到此國, 天使然也, 今何歸乎, 雖然, 朕之妃有所織細綃, 以此祭天可矣, 仍賜其綃. 使人來奏, 依其言而祭之, 然後日月如舊. 藏其綃於御庫爲國寶, 名其庫爲貴妃庫, 祭天所名迎日縣, 又都祈野.

115)『삼국유사』, 권제1, 제1 기이, 第二十一毗處王即位十年戊辰幸於天泉亭. 時有烏與鼠來鳴, 鼠作人語云 "此烏去處尋之" 王命騎士追之南至避村, 兩猪相鬪留連見之忽失烏所在. 徘徊路旁時有老翁自池中出奉書. 外面題云 '開見二人死, 不開一人死.' 使來獻之, 王曰 "與其二人死莫若不開但一人死耳." 日官奏云 "二人者庶民也, 一人者王也." 王然之開見書中云 '射琴匣.' 王入宮見琴匣射之. 乃內殿焚修僧與宮主潛通而所奸也. 二人伏誅.

116) 신라의 관제는 아니지만 『삼국사기』, 권40, 잡지9, 직관(職官)에 의하면 백제에 일관부(日官部)가 있었다. 이를 근거로 일자가 국가체제의 정비에 따라 일관부로 편입되었다고 보는 연구도 있다. ;장인성, 『백제의 종교와 사회』, 서경, 2001, 92쪽.

의 말뚝을 배열하였다.[117] 즉 마립간은 구별되는 왕을 뜻한다. 왕권 강화라는 정치적 시스템이 작용한 명칭이라고 할 수 있다.[118] 이 시기의 재이 조치는 총 11건으로 내물마립간[119]과 눌지마립간대의 기록이 각각 2건, 3건이다.[120] 내물마립간에서 눌지마립간으로 이어지는 이 시기의 왕권 강화의 노력 덕분에 부자상속으로 즉위한 소지마립간은 마립간시기 중 가장 많은 재이 조치를 시행하였다. 총 6건의 재이 조치가 시행되었는데 시행된 시기를 기준으로 크게 1기와 2기로 구분할 수 있다.

1기의 재이 조치는 소지마립간 재위 초기에 시행된 것으로, 사면을 제외하고 대부분 진휼과 위로 등 실질적 조치였다.[121] 이후 2기의 재이 조치는 492년(소지마립간 14)의 감선과 497년(소지마립간 19)의 천거이다. 국왕이 주도적으로 재이 조치를 취하는 양상은 재이의 책임이 국왕에게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소지마립간대의 재이 조치 양상을 구분하는 큰 기준은 487년(소지마립간 9)의 왕권 강화 노력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 시기 소지마립간은 고구려의 간섭에서 벗어나면서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중 대표적인 정책이 월성 중심의 왕경(王京)을 정비하는 것이었다. 소지마립간은 월성을 중심으로 하는 구심력을 강화하려 하였다. 월성을 수리한 후 이거(移居)하였고,[122] 사방에 우역(郵驛)을 설치하고 관도(官道)를 수리하였다.[123] 우역과 관도는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교통망 제도로, 물자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구축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의 인적·물적 자원들이 중앙에 모일 수 있게 되어 왕경에 시장이 개설되기도 하였다.[124] 497년에 가뭄과 황충해로 피해를 입자 관리들에게 명하여 재주 있는 사람을 천거한 것과도 관련 있다.

또한 같은 해에 신궁을 설치하였다.[125] 신궁은 신을 제사하는 곳을 말한다. 궁은 묘(廟)로 치환 가능하므로 이곳에 모셔진 신은 조상신이라고 할 수 있다.[126] 시조가 탄생한 곳인 나

---

117) 『삼국사기』, 권제3, 신라본기3, 눌지마립간 원년, 金大問云, "麻立者, 方言謂橛也. 橛謂諴操, 淮位而置. 則王橛爲主, 旨橛列於下, 因以名之."

118) 마립간을 마립(麻立)과 간(干)의 합성어로 보아, 하위의 간들을 거느린 까닭에 '간 중의 간'이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해석이 있다. 이 또한 이사금을 통치자의 칭호로 사용하던 시기에 비해 더 강력한 정치지배자가 등장한 것을 뜻한다. ;경상북도, 「마립간기의 출범과 부체제」, 『신라의 건국과 성장』, 경상북도, 2016, 176쪽.

119) 『삼국사기』의 기준으로 보면 내물마립간이 아니라 내물이사금이지만 선행연구에 따라 『삼국유사』의 명칭을 기준으로 삼았다.

120) 이 시기에는 고구려와의 관계를 빼놓을 수 없다. 백제와 왜의 연합세력을 물리치기 위해 고구려로부터 군사적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다. 군사적 지원은 결과적으로 신라 국정에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눌지마립간은 고구려의 영향력에서 점차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였다.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백제와 동맹을 맺어 고구려를 견제하기도 하였다. 이 덕분에 자비마립간부터 고구려의 간섭과 왕실 내부의 세력 갈등 속에 이루어졌던 이전의 양상과 달리 부자상속의 방법으로 왕권이 계승될 수 있었다. 고구려의 참견에서 탈피함과 동시에 왕권이 강화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21) 480년(소지마립간 2)과 483년(소지마립간 5)의 진휼과 482년(소지마립간 4)의 사면이 소지마립간 1기 재이 조치에 속한다. 483년 이전에 실시된 신라시대의 재이 조치는 총 27건으로 그 중 실질적 조치가 15건, 사면 조치가 8건이므로 소지마립간 1기 재이 조치는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122) 『삼국사기』, 권제3, 신라본기3, 소지마립간 9-10년, 秋七月, 葺月城. 十年, 春正月, 王移居月城. 이때 월성 주변에 해자를 둘러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막을 수 있었고, 민가와 공간 구분이 가능했다고 본다. ;전덕재, 「신라 왕경의 공간구성과 그 변천에 관한 연구」, 『역사와 현실』57, 2005, 177쪽.

123) 『삼국사기』, 권제3, 신라본기3, 소지마립간 9년, 三月, 始置四方郵驛, 命所司修理官道.

124) 『삼국사기』, 권제3, 신라본기3, 소지마립간 12년, 三月, 龍見鄒羅井. 初開京師市□, 以通四方之貨.

125) 『삼국사기』, 권제3, 신라본기3, 소지마립간 9년, 春二月, 置神宮於奈乙. 奈乙始祖初生之處也.

126) 채미하, 「신라의 건국신화와 국가제의」, 『한국사학보』55, 2014, 181쪽.

을(奈乙)에 설치되었으므로 신라의 시조를 모시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시조는 김씨 시조이다.[127] 김씨 왕조는 세습으로 왕위를 독점하였다. 눌지마립간대부터의 부자 상속은 이전보다 왕권이 안정되고 강화되었음을 방증해주며, 신궁은 김씨 왕조의 신성성과 정당성을 부과하여 중앙집권을 위한 결집을 위해 건립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소지마립간은 정치·경제적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왕경 정비를 하여 지배 세력을 결집시키고, 신궁의 설치로 중앙의 구심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그 이후부터 재이 발생에 대해 국왕 스스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천명을 부여 받은 국왕의 권위를 재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재이 발생에 대한 조치가 왕권 강화의 노력과 관련 있음을 알 수 있다.

(2) 상대 왕시기

마립간시기의 왕권 강화 노력은 지증왕이 신라라는 국호와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함으로써 표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법흥왕과 진흥왕은 강력한 왕권을 확립함과 동시에 영토를 확대해나갔다. 이 시기의 재이 기록과 재이 조치의 기록을 보면 다른 시기에 비해 수가 적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법흥왕과 진흥왕대의 재이 발생 빈도는 같은 상대 왕시기의 것과 비교해도 극히 적은 편이다.[128]

<표 6> 신라 상대 왕시기의 재이 기록과 발생 빈도

시기(왕)[129]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	진평왕	선덕여왕	진덕여왕
재위기간(년)	15	27	37	54	16	8
재이 기록(건)	4	1	6	21	6	4
재이 발생 빈도(건)	0.26	0.03	0.16	0.38	0.37	0.5
재이 조치(건)	1	0	0	6	0	0

법흥왕과 진흥왕대의 재이 기록이 적은 이유는 재이가 가지는 상징성과 연관 지을 수 있다. 재이는 정치와 도덕이 문란하여 음양의 운행이 혼란스러울 때 발생하는 것으로 그 책임을 하늘로부터 통치 정당성을 부여받은 천자에게 물었다. 재이라는 작은 현상 하나가 커다란 결과를 부를 수 있기에 국왕은 재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법흥왕과 진흥왕 시기는 대내·외적으로 강력한 왕권을 내보이던 때로 재이가 하늘이 내린 견책으로 인식하지

127) 신궁의 주신(主神)이 누군지에 대한 견해는 신라 국조 박혁거세, 김씨 시조, 천신으로 구분된다. 본고에서는 이미 박혁거세를 모시고 있는 시조묘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신궁의 주신을 김씨 시조로 본다. 이미 존재하는 시조묘를 확대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제의 장소를 건립하였다는 것은 이전과 다른 성격의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김정희, 「신라금관의 완성과 마립간기 신라정치 - 자비·소지 마립간기를 중심으로 -」, 『신라문화』 57, 2020, 194쪽.

128) '재이 기록의 수 ÷ 재위 기간'의 값으로, 1년을 기준으로 몇 건의 재이가 발생했는지 알 수 있다. 상대 왕시기 중 법흥왕, 진흥왕을 제외한 시기의 재이 발생 빈도를 살펴보면 1년 기준으로 약 0.37건 일어났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고구려와 백제와의 전쟁이 잦았기 때문에 재이의 발생보다 전쟁에 더욱 집중한 결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삼국통일전쟁을 전개하던 무열왕과 문무왕대의 재이 기록은 많이 남아있다. 그렇기에 전쟁으로 인해 기록의 수가 적다고 보기에 어렵다. 전쟁과 같은 사회 현상이 아닌 실제로 다른 시기에 비해 적게 발생했다는 현실적인 이유와 선택받지 못한 사상적 이유로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129) 상대 왕시기 중 진지왕은 재위기가 4년으로 짧고 재이 기록뿐 아니라 기록 자체가 적어 표에서 제외하였다.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재이 기록이 적은 것은 실제로 재이 발생이 적었다고 보기 보다는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될 필요가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왕권이 강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강력한 왕권을 토대로 국가체제 정비부터 영토 확장까지 이룩한 법흥왕과 진흥왕 시기에는 재이 기록도 적고, 재이 조치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재이 조치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재이의 발생을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왕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진흥왕에 이어 즉위한 진지왕은, 진흥왕의 차남으로 4년 동안 재위하였다.[130] 도화녀·비형랑 설화[131]에서 진지왕의 음란함을 폐위 이유로 들고 있어 당시 진지왕을 둘러싼 불만과 반발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짧은 재위기간 동안 백제의 연달은 공격이 있어 대외적으로도 신라 사회에 위기감이 있었다.

그 뒤를 이어 진평왕이 즉위하였다. 신라 사회를 둘러싼 대내·외적인 불안으로 왕권은 일시적으로 약화된 시기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진평왕은 진흥왕의 정책을 계승하여 왕실의 위상을 높이려는 노력을 보였다.[132] 진평왕의 왕권 강화를 엿볼 수 있는 설화가 있다.[133] 천사옥대 설화[134]에서 진평왕 즉위의 정통성과 위상을 엿볼 수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딸 덕만이 왕위를 이을 수 있었다. 성골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선덕여왕의 왕위 계승 명분으로 활용한 것은 진평왕의 권위가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135]

특히 584년(진평왕 6) 건복(建福)이라는 연호를 사용함으로써 왕권 회복을 공표하였다. 이를 계기로 왕권 기반 확보에 나설 수 있었다.[136] 진평왕이 실시한 4건의 재이 조치 또한 연호를 제정한 이후부터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조치는 585년(진평왕 7) 가뭄으로 인해 실시된 것이었다. 뒤이어 589년(진평왕 11)과 596년(진평왕 18)에는 각각 홍수와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민들에게 진휼을 하였다. 이후에는 재이가 발생함에도 조치를 보이지 않다가 628년(진평왕 50), 기우제 기록이 등장한다.[137] 이 재이 조치는

---

130) 『삼국사기』에서는 재위 4년 만에 사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고, 『삼국유사』에서는 정사(政事)가 문란하고 왕이 음란함에 빠져 국인들이 폐위시켰다고 전해진다.

131) 『삼국유사』, 권제1, 기이1, 桃花女鼻荊郎, 第二十五舍輪王諡真智大王姓金氏, 妃起烏公之女知刀夫人. 大建八年丙申即位, 御國四年政亂荒婹, 國人廢之. 前此沙梁部之庶女姿容艶美時號桃花娘. 王聞而召致宮中欲幸之, 女曰 "女之所守不事二夫. 有夫而適他雖万乘之威終不奪也." 王曰 "殺之何", 女曰 "寧斬于市有願靡他." 王戱曰 "無夫則可乎", 曰 "可". 王放而遣之. 是年王見廢而崩, 後二年其夫亦死. 浹旬忽夜中王如平昔來於女房曰, "汝昔有諾今無汝夫可乎", 女不軽諾告於父母, 父母曰 "君王之敎何以避之." 以其女入於房. 留御七日常有五色雲覆屋杳氣滿室. 七日後忽然無蹤. 女因而有娠月滿將産天地振動, 産得一男名曰鼻荊.

132) 관리를 임명하는 위화부(位和府), 선박을 관리하는 선부서(船府署) 등 각종 기관을 설치하였다. 또한 불교 진흥에도 적극적이었다. 우선 불교식 왕명을 지어 국왕 가계의 신성성을 부여하였다. 이외에 승려들이 중국으로 건너가 교류를 하고, 황룡사를 중창하는 등 왕권의 안정을 도모하였다. 진평왕은 국가 운영을 위한 정치적 사상으로 유·불교 모두 적극적으로 활용하였기에 지배체제의 정비는 물론이고 국왕의 권위를 안정시켰다.

133) 『삼국유사』, 권제1, 기이1, 天賜玉帶, 第二十六白淨王諡真平大王金氏. 大建十一年己亥八月即位, 身長十一尺. 駕幸内帝釋宮, 亦名天柱寺, 王之所創. 踏石梯三石並折. 王謂左右曰 "不動此石以示後來", 即城中五不動石之一也.. 即位元年有天使降於殿庭謂王曰, "上皇命我傳賜玉帶." 王親奉跪受然後其使上天. 凡郊廟大祀皆服之. 後高麗王将謀伐羅乃曰, "新羅有三寶不可犯何謂也." "皇龍寺丈六尊像一, 其寺九層塔二, 真平王天賜玉帶三也." 乃止其謀. 讃曰. 雲外天頒玉帶圍, 辟雍龍袞雅相宜. 吾君自此身彌重, 准擬明朝鐵作墀.

134) 하늘에서 내려준 옥대는 황룡사장륙상과 황룡사구층탑과 함께 신라삼보(新羅三寶) 중 하나이다. 세 개의 보물 모두 신라의 왕권 강화를 상징하지만 두 개의 보물은 불교와 관련있고, 천사옥대는 천신신앙과 연관 지을 수 있다.

135) 경상북도, 「신라의 체제 정비와 영토 확장」,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역사편』, 2016, 184-185쪽.

136) 박용국, 「新羅 眞智王의 廢位와 眞平王 初期의 政治的 性格」, 『대구사학』85, 2006, 24쪽.

진평왕의 왕권 강화를 위한 정책에서 눈 여겨 볼 사건과 시기가 비슷하여 주목할 만하다. 622년(진평왕 44), 궁궐을 관리하고 궁정업무를 총괄하던 내성(內省)을 두어, 585년에 두었던 대궁(大宮), 양궁(梁宮), 사량궁(沙梁宮) 세 개를 내성사신 1인이 관장하게 하였다.[138] 세 개의 궁을 한 명의 내성사신이 담당하는 것은 왕실의 정치·경제적 기반을 토대로 자신의 지지 기반을 확대하고, 왕권을 더욱 강화한 시점이었다. 그리고 2년 후인 624년(진평왕 46), 당나라 고조로부터 주국 낙랑군공 신라왕(柱國樂浪郡公新羅王)으로 책봉 받았다.[139] 당 중심의 국제 질서에서 왕위 정당성을 부여받아 국내 질서 유지에 전략적으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재이조치가 다시 보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시기의 4건의 재이 조치 모두 연호 사용, 당으로부터의 책봉 등 왕권의 강화와 유지를 위한 사건이 발생한 것을 기점으로 실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관제 개편과 외교 등의 노력 덕분에 진지왕대의 불안을 극복할 수 있었고, 재이 발생에 대한 조치도 그 노력들 중 하나였다.

2. 신라 중대의 전제왕권과 재이 조치의 정치적 효과

소지마립간대에 처음 등장한 일관은 7세기 이후 기록에 자주 등장한다.[140] 그들은 중앙관제 속에서 국왕에게 자문자로서 국가 존망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국왕은 정치적 수단으로 재이가 활용하였고, 일관이 이를 수행하였다. 왕권을 공고히 해주는 정치사상으로 재이 사상이 채택된 이유는 『한서』예문지에서 찾을 수 있다. “천문을 통해 길흉의 상을 판단하니 빼어난 임금이 정치를 성찰하는 까닭이 된다”고 하였다. 재이에 대한 해석이 국왕을 향하고 있어, 재이 조치는 왕권 강화와 유지를 위한 조건으로 성립할 수 있었다.

왕권 강화라는 정치적 과제와 재이 사상의 관련성은 신라 중대에 이루어진 재이 조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앞의 <표 5>에서 보았듯이 이 시기의 재이 조치가 신라 상대에 비해 시행 빈도가 높다. 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끼치는 재해가 아닌 불안감을 조성하는 이변 현상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총 21건의 재이 조치들 중 이변 현상으로 시행된 조치가 7건으로 그 비중이 33% 가량이다. 상대와 하대에 각각 5%, 8%인 것에 비하면 이변 현상에 대한 중대의 재이 조치 실시 빈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상대의 경우 총 36건의 재이 조치 중 내해이사금대 2건의 조치가 이변 현상에 대한 후속 조치였다. 이때의 이변은 일식이었다. 하대에는 25건의 조치 중 2건이 이변에 대한 조치였다. 이 모두 이변 현상의 단독 발생이 아니라 재해와 함께 기록되어 있으며, 중시 교체라는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반면에 중대의 이변에 대한 재이 조치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 <표 7>에서 신라 중대에 실시된 이변 현상에 대한 재이 조치를 살펴보겠다.

---

137) 진평왕대에 발생한 재이는 총 21건이다. 진휼을 펼친 596년 이후부터 화재가 발생한 609년(진평왕 31) 사이에는 재이 기록이 등장하지 않는다. 609년 이후부터 628년(진평왕 50) 사이에는 10건의 재이가 발생하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138)『삼국사기』, 권제4, 신라본기4, 진평왕 44년, 二月, 以伊湌龍樹爲內省私臣. 初王七年大宮·梁宮·沙梁宮三所各置私臣, 至是置內省私臣一人, 兼掌三宮.

139)『삼국사기』, 권제4, 신라본기4, 진평왕 46년, 三月, 唐高祖降使, 冊王爲柱國·樂浪郡公·新羅王.

140)『삼국유사』, 권제2, 제2 기이, 만파식적 ;권제2, 제2 기이, 처용랑 망해사 ;권제3, 제4 탑상, 백율사 ;권제3, 제4 탑상, 전후소장사리 ;권제5, 제7 감통, 월명사도솔가 ;『삼국사기』, 권제11, 신라본기11, 진성왕 11년 ; 『삼국사기』, 권제50, 열전10, 궁예.

<표 7> 신라 중대의 이변 현상에 대한 재이 조치

시기(왕)	날짜(음)	재이 발생	재이 발생에 따른 조치
문무왕	670년 12월	토성변+지진	중시 교체
신문왕	687년 04월	성변(星變)	조묘에 제사
성덕왕	708년 04월	토성변	사면
성덕왕	715년 12월	유성	사면
경덕왕	763년 08월	계절에 맞지 않는 개화[花變]	중시 교체
혜공왕	766년 01월	두 개의 해[二日並出]	사면
혜공왕	779년 03월	지진+금성변	백좌법회

먼저 중시 교체이다. 670년에는 토성(土星)이 달에 들어가고 경주에 지진이 일어났다는 두 건의 재이 기록 직후에 중시 지경(智鏡)이 물러났다는 기사가 등장한다.[141] 재이가 발생하여 중시가 교체된 사례는 경덕왕대에도 확인할 수 있다.[142] 인사 변동은 중국의 재이 사상이 정치권력의 교체 근거로 쓰이는 것과 연관 있다. 강력한 왕권을 가진 왕 대신 신하인 중시가 그 책임을 진 것으로 보인다. 즉 재이 발생의 원인을 국왕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것으로 본 것이다.[143]

사면을 거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708년(성덕왕 7)[144]과 715년(성덕왕 14)[145], 그리고 766년(혜공왕 2)[146]이 그 사례이다. 이 중 715년의 경우에는 9월에 금성변(金星變)이, 10월에는 유성이 자미원(紫微垣)을 침범, 그리고 12월에는 유성이 태미원(太微垣)을 침범하였다. 연속된 이변 현상으로 사면을 시행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은 제사 의례이다. 혜공왕대에는 백좌법회를 개최하였고 신문왕의 경우에는 조묘에서 제사를 지냈다.[147] 별에 괴변이 발생하고, 빛을 잃고, 떨어지는 것에 대한 원인이 국왕의 무도(無道)에 있음을 조상 신령 앞에서 고백하는 모습을 통해 재이의 원인이 국왕에게 있고, 그 책임 또한 국왕이 져야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제사의 원인이 되었던 하늘의 변[天變]은 같은 해 2월, 원자(元子)가 태어난 날 일어난 변고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148] 원자는 다음 왕위를 이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인물로, 그의 탄생과 즉위는 왕권과 관련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자가 태어날 때 일어난 변고를 염려하여 조상들 앞에서 국가와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는 동시에 원자의 정통성을 선고하였다.[149]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 이변 현상에 대해서도 여러 조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재

141) 『삼국사기』, 권제6, 신라본기6, 문무왕10년, 十二月, 土星入月. 京都地震. 中侍智鏡退.
142) 『삼국사기』, 권제9, 신라본기9, 경덕왕 22년, 八月, 桃李再花. 上大等信忠·侍中金邕免.
143) 이희덕, 앞의 논문, 2004, 25쪽.
144) 『삼국사기』, 권제8, 신라본기8, 성덕왕 7년, 夏四月, 鎮星犯月, 大赦.
145) 『삼국사기』, 권제8, 신라본기8, 성덕왕 14년, 十二月, 流星自天倉入大微, 赦罪人.
146) 『삼국사기』, 권제9, 신라본기9, 혜공왕 2년, 二年, 春正月, 二日並出, 大赦.
147) 『삼국사기』, 권제8, 신라본기8, 신문왕 7년, 遣大臣於祖廟, 致祭曰, "王某稽首再拜, 謹言大祖大王·真智大王·文興大王·大宗大王·文武大王之靈. 某以虛薄, 嗣守崇基, 寤寐憂勤, 未遑寧處. 奉賴宗庙獲持, 乾坤降禄, 四过安静, 百姓雍和, 異域來賓, 航琛奉職, 刑清訟息, 以至于今. 比者, 道喪君臨, 義乖天鑒, 怪成星象, 火宿沉輝, 戰戰慓慓, 若墜淵谷. 謹遣使某官某, 奉陳不腆之物, 以虔如在之靈. 伏望炤察微誠, 矜恤眇末, 以順四時之候, 無愆五事之徵. 禾稼豐而疫癘消, 衣食足而禮義備, 表裏清謐, 盜賊消亡, 垂裕後昆, 永膺多福, 謹言."
148) 『삼국사기』, 권제8, 신라본기8, 신문왕 7년, 春二月, 元子生. 是日, 陰沉昧暗, 大雷電.
149) 채미하, 「新羅 宗廟制와 王權의 推移」,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92쪽.

해 극복의 현실수단에서 더 나아가 하늘로부터 통치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행자로서의 조치임을 보여주었다. 또한 재이 사상이 왕권 강화와 유지를 위한 하나의 계책이었음을 방증해 주었다. 이는 재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 강화된 결과이다.[150] 비담의 난(647) 때, 월성에 별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반란군의 기세가 오르자, 이를 본 김유신은 연에 불씨를 올려 보내 적군의 사기를 다시 떨어뜨렸다.[151] 김유신과 반란군 모두 유성 현상이 불길함을 상징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재이가 가지는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기에 그 상징성을 전략적으로 이용한 것이다. 662년 사찬 여동이 어머니를 때리자 벼락을 통해 꾸짖었다는 기록에서도 이미 하늘은 벌을 내리는 존재이며, 천벌로써 벼락을 내린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152] 이는 재이에 대한 인식이 확산된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이다.

재이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재이 조치의 시행이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재이에 대한 조치는 선택적이었다. 비단 신라 중대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재이 발생에 대한 국가의 대응 조치는 이를 행해야하는 정치적 정당성을 필요로 하였다. 재이 발생이 정치적 명분으로 활용될 수 있었던, 혹은 활용해야했던 상황이 있었을 것이다. 총 20건의 신라 중대의 재이 조치 중 일부 사례를 정치·사회적 배경과 연결시켜 그 필요성을 보고자 한다.[153]

(1) 문무왕

먼저 문무왕대에 발생한 재이 조치 중 하나인 사면의 필요성이다. 문무왕대에 발생한 3건의 화재는 모두 영묘사에서 일어났고, 이후에 사면을 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9>와 같다.

---

150) 재이 기록에서 찾을 수 있는 신라 중대의 또 다른 특징은 신라 상대에 비해 재이 기록의 수가 늘어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상대에 해당하는 재이 기록은 총 264건으로 이 중 상대 왕시기 기록은 42건이다. 중대와 하대의 것은 각각 158건, 160건이다. 재이에 대한 의미를 인지하고 있었기에 더 많은 수의 기록이 남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표 8>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나타나는 재이 기록

시대 구분	상대 (박혁거세~진덕여왕)	중대 (무열왕~혜공왕)	하대 (선덕왕~경순왕)
시기(년)	B.C.57~654	654~780	780~935
재이 기록(건)	270	162	167

151) 『삼국사기』, 권제41, 열전1, 김유신 상, 乃造偶人, 抱大載於風鳶而颺之, 若上天然. 翌日, 使人傳言於路曰, “昨夜落星遝上.” 使賊軍疑焉. 又刑白馬, 祭於落星之地, 祝曰, “天道則陽剛而陰柔, 人道則君尊而臣卑. 苟或易之, 即爲大亂. 今毗曇等, 以臣而謀君, 自下而犯上, 此所謂亂臣賊子, 人神所同疾, 天地所不容. 今天若無意於此, 而反見星怪於王城, 此臣之所疑惑而不喩者也. 惟天之威, 從人之欲, 善善惡惡, 無作神羞.”

152) 『삼국사기』, 권제6, 신라본기6, 문무왕2년 秋八月, 沙飡如冬打母, 天雷雨震死, 身上題“須彌堂”三字.

153) 총 20건의 신라 중대 재이 조치를 다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사례를 선정하여 살펴볼 것이다. 사례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징적 조치에 한할 것. 둘째, 앞서 언급한 사례는 제외할 것. 이에 따라 문무왕과 성덕왕대의 사면, 경덕왕의 효에 대한 포상, 혜공왕대의 사면과 천거를 살펴보고자 한다.

154) 영묘사에서 화재가 발생한 2월에 탐라국의 항복을 받아냈다. 바로 뒤이어 나오는 사면은 탐라국의 항복을 위한 조치였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사면과 함께 큰 잔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표 9> 문무왕대에 발생한 화재와 사면 대응

날짜(음)	내용	날짜(음)	재이 조치, 혹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방책
662년 2월	영묘사에 불이 났다.	662년 3월[154]	3월에 죄수들을 크게 용서하여 풀어주었다. 왕은 이미 백제를 평정하였으므로, 담당 관청에 큰 잔치를 베풀라고 명령하였다.
666년 4월	영묘사에 불이 났다.	666년 4월	죄수를 크게 풀어주었다.
668년 12월	영묘사에 불이 났다.	669년 2월21일	총장 2년(669) 2월 21일 새벽 이전까지 오역(五逆)을 범하여 사형 죄에 해당하는 자 이하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들은 죄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모두 풀어주도록 하라. 이전에 사면을 받은 후에 죄를 범하여 작(爵)을 박탈당한 자는 모두 옛 작에 의거하여 회복시킨다.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다만 그 몸만 풀어주되, 돌려줄 재물이 없는 경우 추징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문무왕대에 발생한 3건의 화재 이외에 신라본기에서 나타나는 화재 기록은 총 12건이다.[155] 그러나 12건의 화재 이후에 사면과 같은 대응이 나타나지 않는다. 262년(미추이사금 원년) 7월에 금성 서문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러고 7개월 후인 263년 2월에 사면을 베풀었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이때의 사면 기록은 “왕이 직접 국조묘에서 제사를 주관하고 크게 사면하였다”라고 되어 있어 국조묘 제사에 따른 사면인 것으로 파악 된다.[156]

문무왕대의 3건의 화재와 3번의 사면 대응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에는 재이 사상의 강화와 더불어 재이가 발생한 장소가 가지는 상징성도 있다.[157] 3건의 화재 모두 영묘사(靈廟寺)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영묘사는 칠처 가람 중 한 곳으로 선덕여왕대 창건되었다. 왕실 사원을 관리·운영하는 성전(成典)이 설치되었고,[158] 그 남쪽에서는 오성제(五星祭)를 지내

155) 지마이사금 21년, 일성이사금 20년, 미추이사금 원년, 소지마립간 4년, 진평왕 18년과 31년, 태종무열왕 4년, 성덕왕 2년, 원성왕 14년, 헌덕왕 5년, 문성왕 14년과 17년. ;진평왕 18년에 왕이 직접 진휼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외의 화재에 대해서는 재이 조치 기록이 없다.

156) 『삼국사기』, 권제2, 신라본기2, 미추이사금2년, 二月, 親祀國祖廟, 大赦. ;국조묘 제사는 시조묘 제사로, 왕실의 시조에게 제사함으로써 혈통적 신성성과 왕권의 정당성을 표출하였다. 동시에 사면을 함으로써 본인의 통치 이유를 널리 알렸다.

157) 『한서』 오행지上의 B.C 640년(희공 20)의 기사에 따르면 5월 을사일에 서궁에서 불이 났다. 희공은 초나라에 장가를 갔으나, 제나라의 협박을 받아 제나라 여인을 부인으로 삼은 것에 대한 하늘의 벌이었다. 여기서 서궁은 부인이 거처하는 소침으로, 서궁에 화재가 났다는 것은 첩이 궁을 쓸 수 있는가에 대한 것, 즉 주벌하려는 뜻에 있었다. 이외에도 재이가 발생한 장소가 재이의 상징성과 연결되어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어디서 발생하였는지, 그 장소가 중요하다. 영묘사는 신라 왕실에서 건립된 사찰로 이곳에서의 화재에 대한 재이 조치는 정치적 의도가 바탕에 깔려있다는 사실은 자명하다고 할 수 있다.

158) 『삼국사기』, 권제38, 잡지7, 靈廟寺成典, 景德王十八年改爲修營靈廟寺使院, 後復故.

는[159] 등 신라 왕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찰이다. 화재가 발생한 이곳은 왕실과도 연관 있어 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화재 후 사면을 시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662년의 화재 당시에도 왕권을 높이려는 문무왕의 정치적 의도가 있었기에 민심을 얻기 위한 사면을 내보였을 것이다. 문무왕은 무열왕의 뒤를 이어 정치적 한계를 극복하려 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력한 왕권이 필요하였다. 같은 해 8월, 왕권 강화를 위해 진골귀족세력을 약화시켜야했으므로 반대편 귀족들의 숙청을 단행하였다. 그 과정 속 대당(大幢) 총관의 진주와 남천주(南川州) 총관 진흠의 숙청은 왕권을 공고히 하고 군기를 잡기 위한 사례로 꼽힌다.[160]

이처럼 666년과 668년에도 정치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161] 전쟁을 수행함과 동시에 반대되는 귀족들을 숙청까지 거행하였으므로 문무왕은 사면을 통해 민심을 얻어 왕권을 높이고 신라 사회를 통합하려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다. 즉 당시의 사면은 시혜적 기능이 컸다.

(2) 성덕왕

성덕왕대의 사면은 어떤 기능을 하였을까. 성덕왕대의 재이조치는 총 9건이며 그 중 사면조치는 4건이다. 사면을 내리게 된 배경에는 토성변, 지진, 유성, 가뭄이 있다. 이 중 성덕왕 15년의 가뭄에 의한 사면은 재이가 발생해서 취해진 조치가 아닌, 재이를 해결한 것에 대한 조치로 일종의 축하였다.[162]

708년(성덕왕 7)과 710년(성덕왕 9)에 사면 조치가 취해진 원인이 되는 재이는 각각 토성변과 지진으로, 오행에 따르면 흙(土)에 해당하는 재이들이다. 음양오행은 중국의 영향을 받아 그대로 혹은 우리의 여건에 맞게 수용하였고, 모든 현상을 음양오행설을 기준으로 해석하였다. 토성변과 지진 또한 마찬가지이다. 오행은 방위를 가지는데 이를 오방(五方)이라 한다. 흙은 방위상으로 중앙에 위치하는 것으로, 중앙에 해당하는 국왕에게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흙의 성질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토성변과 지진은 국왕 혹은 왕실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견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조치를 취했던 것이다. 이 시기는 성덕왕이 강력한 왕권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왕실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현상이 발생하면 바로 조치를 취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신라 중대에서 유일하게 귀족 집합체인 국인(國人)에 의해 추대된 왕이다. 그렇기에 즉위 직후 강력한 왕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이를 타파하기 위해 왕권 강화를 위한 여러 노력을 펼쳤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갈등은 있었다. 715년(성덕왕 14) 9월에 금성변이, 10월에는 유성의 자미원(紫微垣) 침범, 12월에는 유성이 태미원(太微垣)에 들어가는 등 연속적으로 이변 현상이 일어났다.[163] 그래서 12월에 유성이 발생한 이후 사면

159) 『삼국사기』, 권제32, 잡지1, 文熱林行日月祭, 靈廟寺南行五星祭, 惠樹行祈雨祭.

160) 그들을 친당파 귀족으로 분류하여 전제왕권과 반대되는 입장에 있다고 판단한 이유는 김진주의 아들 풍훈(風訓)의 행적 때문이다. 풍훈이 당나라에 숙위학생으로 있다가 아버지의 죽음을 원망하여 설인귀(薛仁貴)가 이끄는 당군의 길잡이가 되어 신라를 침공하였다. ;주보돈, 「나당동맹의 시작과 끝」, 『김춘추와 그의 사람들』, 지식산업사, 2018, 128-139쪽.

161) 666년은 고구려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 중이었으며, 668년은 고구려 정복 이후이지만 대당정책에 대한 진골귀족들의 불만이 제기되던 때이다. 두 시기 모두 전쟁 수행을 위해서 사회적 통합을 필요로 하였고, 이에 따라 문무왕은 재이 발생 이후에 사면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162) 『삼국사기』, 권제8, 신라본기8, 성덕왕 15년, 夏六月, 旱, 又召居士理曉祈禱則雨. 赦罪人.

163) 『삼국사기』, 권제8, 신라본기8, 성덕왕 14년, 秋九月, 大白掩庶子星. 冬十月, 流星犯紫微. 十二月, 流星自天倉入大微, 赦罪人.

을 행하고 있다. 유성이 침입한 자미원은 천제(天帝)가 있는 곳을, 태미원은 천제가 다스리는 궁정을 의미하여 왕실 내에 불안감을 조성했기 때문이다. 또한 사면 조치를 취한 것에는 같은 시기에 왕자 중경(重慶)을 태자로 책봉하기 위한 준비 단계였던 것으로 보인다.[164] 다음 왕위 계승을 예정해두는 태자 책봉은 왕통의 안정과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 강력한 왕권을 보이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165] 태자 중경은 성덕왕의 첫 번째 왕후인 성정왕후(成貞王后)의 아들로 여겨지는데, 그의 어머니인 성정왕후가 궁에서 쫓겨나게 된 사건도 있었다.[166] 태자로 책봉되고 이듬해의 일이었다. 이질적인 두 내용의 기록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당시 왕실 내부에 정치적 갈등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167] 강력한 왕권을 보이기 위한 태자 책봉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직전에 발생한 일련의 천변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

(3) 경덕왕

그 다음에 등장하는 재이 조치는 경덕왕대이다. 이 시기에는 총 4건의 재이 조치가 실시되었다. 그 중 눈에 띄는 사례는 효행을 실천한 웅천주(熊川州)의 향덕(向德)에게 포상을 내린 것이다. 향덕은 기근으로 굶주리게 되자 다리 살을 베어 아버지께 드리는 효행을 실천하였고, 그에 따라 경덕왕은 곡식 등 물품들을 하사하고 비문을 세워주었다.[168] 왜 경덕왕은 효행을 행한 향덕에게 포상을 내렸을까. 신라는 유학을 통치이념으로 삼아 덕치를 행하려 하였다. 특히 신라 중대에는 본격적인 유학 수용과 교육으로 유학이념이 확산되었다. 682년(신문왕 2)에 국학을 설치하여 유학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고자 하였다. 이곳에서 배우는 유교 경전으로는 『논어(論語)』, 『상서(尙書)』, 『효경(孝經)』등이 있다.[169] 또한 경덕왕은 당으로부터 책봉과 동시에 『효경』 한 부를 선물로 받았다.[170] 경전 선물은 당과 신라 간의 관계를 확인시켜줌과 동시에 신라 내부에서 위계 정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171] 이렇게 신라 중대 왕실은 유학 경전을 통해 충효 개념을 확산시켰고, 이후 관인을 넘어 일반 민들에게까지 확대되었다.

국가가 주도적으로 충효관을 확대시킨 이유는 왕권을 높이기 위함이었다. 개개인의 범주에서 효를 강조하는 것은 곧 가부장적 지배 구조의 정점에 있는 왕권에게도 적용되기 때문

---

164)『삼국사기』, 권제8, 신라본기8, 성덕왕 14년, 封王子重慶爲太子.

165) 김창겸, 「新羅時代 太子制度의 性格」, 『한국상고사학보』13, 1993, 160쪽.

166)『삼국사기』, 권제8, 신라본기8, 성덕왕 15년, 出成貞王后, 賜彩五百匹·田二百結·租一萬石·宅一區. 宅買康申公舊居, 賜之.

167) 신정훈, 「新羅 聖德王代의 정치적 변화와 성격 －成貞王后의 출궁과 炤德王后의 입궁에 대하여－」, 『한민족문화연구』24, 2008, 327쪽. ;조범환, 「新羅 中代 聖德王代의 政治的 動向과 王妃의 交替」, 『신라사학보』22, 2011, 110쪽.

168)『삼국사기』, 권제9, 신라본기9, 경덕왕 14년, 春, 穀貴民饑. 熊川州向德, 貧無以爲養, 割股肉, 飼其父. 王聞, 賜賚頗厚, 仍使旌表門閭. ;『삼국사기』, 권제48, 열전8, 향덕, 天寶十四年乙未, 年荒民饑, 加之以疫癘. 父母飢且病, 母又發癰, 皆濵於死. 向德日夜不解衣, 盡誠安慰, 而無以爲養. 乃刲髀肉以食之, 又吮母癰, 皆致之平安. 鄕司報之州, 州報於王. 王下教, 賜租三百斛·宅一區·口分田若干, 命有司立石紀事以標之. ;『삼국유사』, 권제5, 제9 효선, 향득사지할고공친 경덕왕대, 能川州有向得舍知者. 年凶, 其父幾於餒死, 向得割股以給養. 州人具事奏聞, 景德王賞賜租五百碩.

169)『삼국사기』, 권제38, 잡지7, 직관上, 教授之法, 以周易·尚書·毛詩·禮記·春秋左氏傳·文選, 分而爲之業. 博士若助教一人, 或以禮記·周易·論語·孝經, 或以春秋左傳·毛詩·論語·孝經, 或以尚書·論語·孝經·文選, 教授之. 諸生, 讀書以三品出身, 讀春秋左氏傳若禮記若文選, 而能通基義, 兼明論語·孝經者爲上, 讀曲禮·論語·孝經者爲中, 讀曲禮·孝經者爲下. 若能兼通五經·三史·諸子百家書者, 超擢用之. 或差筭學博士若助教一人, 以綴經·三開·九章·六章, 教授之.

170)『삼국사기』, 권제9, 신라본기9, 경덕왕 2년, 并賜御注孝經一部.

171) 이현주, 「신라 효경의 수용과 활용」, 『한국사상사학』64, 2020 129쪽.

이다.[172] 개개인의 신분과 출신은 각기 달랐지만 효에 대한 인식은 충으로 이어지므로 중대 왕실은 민들에게 효 인식을 뿌리박게 하였다. 그렇기에 향덕과 같은 효행에 국가에서 곡식과 물품들을 하사하고 비석을 세워주는 등 포상을 내린 것이다.

(4) 혜공왕

마지막 사례는 혜공왕대의 재이 조치이다. 경덕왕 사후, 혜공왕이 왕위를 잇게 되었는데 그 때 나이가 8살이었다. 어린 나이로 즉위하게 되어 경덕왕의 두 번째 부인이자 혜공왕의 어머니인 만월부인(滿月夫人)이 섭정하였다.[173] 태후의 섭정기에 왕권이 불안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768년(혜공왕 4년)에 발생한 대공·대렴의 반란이 있기 전의 기록을 보면 총 17건 중 10건이 재이 발생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174] 재이는 기본적으로 왕의 실정을 근거로 하늘이 내리는 견책이라 여겨졌기 때문에 잦은 재이 발발은 불안정한 정국을 암시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175]

이 중 766년(혜공왕 2)에 발생한 일변에 대해서 크게 사면을 하였다. 이때의 일변은 두 개의 해가 나타난 것[二日並出]이다. 다수의 해가 뜬 현상은 혜공왕대 이외에 845년(문성왕 7)에도 발생하였다. 이 시기 또한 신하들의 반대로 장보고의 딸을 왕비로 삼지 못하자, 장보고가 청해진을 근거로 반란을 일으키는 등 왕위를 위협하는 사건들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정사 중 동아시아 전통 천문학의 모범 체계를 제시한 기록으로 평가 받는 『진서(晋書)』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등장한다. 세 개의 해가 등장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황제 자리를 두고 제후들이 권력 다툼을 했다는 기록이 등장하여 다수의 해(日)와 권력 다툼 간의 상관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176] 특히 『진서』는 이미 김춘추가 당으로부터 하사 받은 적이 있어 일변(日變) 현상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당시에 알고 있었을 것이다.[177] 혜공왕은 두 개의 해가 등장한 것이 훗날 왕위를 둘러싼 권력 다툼 혹은 반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인식하고 사면이라는 조치를 취했을 것이다. 불안정한 정국 가운데 사면을 실시함으로써 하늘에 반성의 행위를 보임과 동시에 민들의 불안함을 잠재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변 발생 2년 후 대공·대렴의 반란이 일어났다. 그 이전에 호랑이가 궁궐에 들어왔다는 기사가 등장하여 호랑이를 통해 불안한 정세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178] 이 반란은 33일간 왕궁을 둘러싸고 나서 세 달 만에 진압되었다.[179] 이어서 이

---

172) 김영하,「三國遺事 孝善編의 이해」,『新羅文化祭學術論文集』30, 2009, 31쪽.

173)『삼국사기』, 권제9, 신라본기9, 혜공왕 1년, 惠恭王立. 諱乾運, 景德王之嫡子. 母金氏滿月夫人, 舒弗邯義忠之女. 王即位時年八歲, 大后攝政. ;『삼국유사』, 권제2, 제2 기이, 경덕왕·충담사·표훈대덕, 至八歲王崩太子即位, 是爲惠恭大王. 幼冲故大后臨朝政條不理, 盜賊蜂起不遑備禦, 訓師之說驗矣.

174) 혜공왕 2년부터 혜공왕 4년까지, 총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발생한 재이는 10건이다. 두 개의 해가 나란히 나타나고(二日竝出), 기형의 소가 태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거나, 천둥이 치고, 우박이 내리고, 별이 떨어지는 등 다양한 재이가 발생하였다. 이는 단순한 자연 현상이라 보기에는 빈도수가 잦기에 그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175) 이에 대한 근거는 혜공왕 13년 지진이 또 다시 일어나자 김양상이 혜공왕에게 당시 정치를 극론하였다는 점과 말기에 기강이 문란해지고 재이가 발생하여 인심이 등을 돌렸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재이의 잦은 발생은 안정적인 국가 운영과 민심 유지에 위협이 되는 존재였음을 알 수 있다.

176)『晋書』, 권제12, 天文中, 又曰: 三日並出, 不過三旬, 諸侯爭爲帝. 日重暈, 天下有立王. 晕而珥, 天下有立侯. 故陳卓曰, 當有大慶, 天下其三分乎! 三月而江東改元爲建武, 劉聰, 李雄亦跨曹劉疆宇, 於是連兵累葉.

177)『삼국사기』, 권제5, 신라본기5, 진덕왕 2년, 遣伊湌金春秋及其子文王朝唐. 太宗遣光祿卿柳亨, 郊勞之. 旣至, 見春秋儀表英偉, 厚待之. 春秋請詣國學, 觀釋奠及講論, 太宗許之. 仍賜御製溫湯及晉祠碑幷新撰晉書.

찬 신유를 상대등으로, 이찬 김은거를 시중으로 삼았다.[180] 반란 이후의 어수선한 정세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었다. 그다음 해 황충해와 가뭄이 들자 천거를 시행하였는데, 이 또한 반란 후 관인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함이었다.[181]

이상 중대 4명의 왕들이 실시한 재이 조치 사례들을 정치·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살펴보았다. 이들은 재이 조치를 왕권 강화 혹은 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활용하였다. 재이 사상의 정치적 성격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재이에 대한 당시의 인식은 결과적으로 재이 조치가 양적 증가와 질적 심화의 양상을 보였다.

178) 문무왕 13년, 호랑이가 궁에 들어왔다는 기사[虎變] 다음에 김유신의 사망과 아찬 대토의 배반 발각 사건이 등장한다. 혜공왕 4년에는 호변 이후 대공, 대렴의 난이 일어나고, 6년에는 김융 반란이 일어났다. 문성왕대에도 호랑이가 신궁(神宮) 정원에 들어왔었고 그로부터 3년 뒤 염장의 장보고 살해, 그 다음 해에는 양순의 모반사건도 있었다. 이러한 모습은 고구려본기에서도 찾을 수 있다. 양원왕 11년에 호랑이가 왕도에 들어와 잡았다는 기사가 나온다. 호랑이를 잡고 2년 후, 환도성에서 반역사건이 일어나고 곧이어 왕이 붕어했다는 기사가 나온다. 일련의 사례를 통해 호랑이 이변(호변)과 반란 및 모반 사건이 연관 있음을 알 수 있다.

179)『삼국사기』, 권제9, 신라본기9, 혜공왕 4년, 秋七月, 一吉飡大恭與弟阿飡大廉叛. 集衆圍王宮三十三日, 王軍討平之, 誅九族. ;『삼국유사』, 권제2, 제2 기이, 혜공왕, 角干大恭家梨木上雀集無數. 據安國兵法下卷云, 天下兵大乱, 於是大赦修省. 七月三日大恭角干賊起, 王都及五道州郡并九十六角干相戰大乱. 大恭角干家亡, 輸其家資寶帛于王宮. 新城長倉火燒, 逆黨之寶穀在沙梁·牟梁等里中者亦輸入王宮. 乱弥三朔乃息, 被賞者頗多誅死者無筭也. 表訓之言國殆是也.

180)『삼국사기』, 권제9, 신라본기9, 혜공왕 1년, 冬十月, 以伊飡神猷爲上大等, 伊飡金隐居爲侍中.

181) 이기봉, 「신라 혜공왕대의 薦擧와 災異」, 『신라문화』51, 2018.

Ⅳ. 맺음말

당대 사람들은 자연의 이상 현상에 대해 보편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모든 재이에 대해 조치를 취한 것은 아니었다. 후속 조치를 취하느냐 취하지 않느냐의 차이는 '비일상적인 현상이 인간 사회에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인식되었는가'에 따르기 때문이다. 고대 재이 사상에 따라 재이를 하늘이 내리는 견책으로 인지하였고, 이에 대해 국왕은 진휼과 사면과 같은 조치를 취함으로써 반성의 모습을 보였다. 본고에서는 조치가 시행된 재이 기록을 중점으로 분석하여 재이 사상의 정치적 기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2장에서 재이 조치를 실질적 조치와 상징적 조치로 구분해보았다. 실질적 조치는 재이로 인해 직접적 피해를 입은 민들에게 내리는 대응으로서 진휼과 조세감면, 공사 중단, 위로, 권농 정책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상징적 조치는 피해민들의 구제를 실질적으로 돕진 않지만 반성하는 행위를 보여주는 우회적인 대응 정책이었다. 예시로 사면, 사열, 공사 중단, 기우제와 같은 제사 등이 있다.

3장에서는 이들을 다시 시기별로 구분하여 각 시기마다 재이 조치의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신라 상대는 통치자의 명칭에 따라 이사금시기와 마립간시기, 그리고 상대 왕시기로 구분하였다. 이사금시기의 일자가 소지마립간대에 이르러 일관으로 등장하였다. 점복을 행하던 일자가 국가 내로 편입된 것으로, 이전보다 왕권이 강화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소지마립간은 월성을 중심으로 한 왕경을 정비함으로써 내부 결속을 다져 이전보다 중앙의 구심력을 강화하였다. 중앙집권을 위한 노력을 보이는 시기 이후에는 이전의 재이 조치와 동시에 감선과 천거 등 국왕이 주도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양상도 등장하고 있다. 재이 조치의 양상 변화는 일련의 왕권 강화를 위한 노력과 재이 조치의 시행이 관련 있음을 보여준다.

마립간시기의 왕권 강화 노력을 바탕으로 법흥왕과 진흥왕은 왕권을 공고히 함과 동시에 영토를 확장해나갔다. 두 국왕의 재위 동안 재이 발생에 대한 조치가 나타나지 않는다. 재이가 발생한 기록도 극히 적다. 왕권이 강했기에 음양의 조화가 흐트러졌을 때 발생하는 재이가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 진평왕대에 6건의 재이 조치가 실시된다. 이는 전대의 혼란스러움을 왕권 강화를 통해 극복하려는 하나의 방법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왕권 회복을 공표하는 연호 제정을 기점으로 재이 조치가 시행되었으며, 당으로부터 책봉을 받고나서 다시 재이 조치들이 실시되기 때문이다. 소지마립간대에 이어 진평왕대의 사례를 통해서도 재이 조치의 정치적 기능을 이해할 수 있었다.

수많은 경험의 축적을 통해 얻은 사유가 전승되고 기억됨으로써 하나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고, 정치적으로 해석되어 활용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왕권 강화에 노력을 가했던 국왕들에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법칙이었다. 재이가 가지는 그 의미가 왕권 강화 및 유지에 활용되었음을 신라 상대에 이어 중대의 것도 고찰해보았다. 신라 중대는 앞선 상대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재이 조치의 실시 빈도가 늘어나고, 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이변 현상에 대해서도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재이 사상의 강화와 확산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기처럼 재이 조치는 모든 재이에 대해서 행해진 것이 아닌, 선택적이었다. 4명의 왕들이 실시한 재이 조치 사례를 통해 이를 시행해야 했던 정치·사회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이 모두 왕권 강화 혹은 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재이의 발생이 계기로 작용하여 시혜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당시 강

조하는 충효사상을 한 번 더 부각하였다. 즉 재이 조치에 정치적 기능이 있으며, 이는 재이 사상이 정치사상에서 비롯되었음을 방증해준다.

재이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있는 중국의 기록과 달리, 『삼국사기』의 재이 기록은 단편적이므로 재이 기록이 가지는 상징성을 분명하게 설명할 수 없었다. 다만 단편적인 기록 간의 관련성을 통해 재이에 대한 당시의 인식과 재이 조치의 기능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왕권을 강화시키고 유지하기 위한 방략(方略)으로서 재이를 활용했던 것이다.

《참고문헌》

1. 원문사료

『삼국사기』, 『삼국유사』, 『한서』, 『춘추번로』, 『진서(晋書)』

2. 저서

경상북도, 『신라의 건국과 성장』, 경상북도, 2016.

경상북도,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역사편』, 경상북도, 2016.

김석우, 『자연재해와 유교국가』, 일조각, 2006.

이희덕, 『韓國古代 自然觀과 王道政治』, 혜안, 1999.

장인성, 『백제의 종교와 사회』, 서경, 2001

주보돈, 『김춘추와 그의 사람들』, 지식산업사, 2018.

3. 학위논문 및 학술지 논문

경석현, 「조선 후기 재이론의 정치적 기능의 변질과 관습화」, 『한국사연구』188, 2020.

김복순, 「신라의 백고좌법회」, 『신라문화』36, 2010.

김승우, 「신라 聖德王代 災異의 발생과 政治 運營」,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김영관,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 자연재해와 민간의 대응」, 『백산학회』118, 2020.

김영하, 「三國遺事 孝善編의 이해」, 『신라문화제학술논문집』30, 2009.

김재홍, 「창녕 화왕산성 저수지 출토 목간과 기우제」, 『한국목간학회 학술대회』, 2009.

김정희, 「신라금관의 완성과 마립간기 신라정치 - 자비·소지 마립간기를 중심으로 -」, 『신라문화』57, 2020.

김창겸, 「新羅時代 太子制度의 性格」, 『한국상고사학보』13, 1993.

김태현, 「고려전기 개경시장과 사시(徙市) 기우제-『고려도경(高麗圖經)』 속 허시(虛市)의 실체-」, 『한국사연구』191, 2020.

남지영, 「신라 문무왕과 서형산의 공간적 함의」,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박남수, 「신라 성덕왕대의 災異와 조공무역」,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박미선, 「불교 수용 후 신라의 자연재해와 불교적 대응」, 『역사와 경계』120, 2021.

박용국, 「新羅 眞智王의 廢位와 眞平王 初期의 政治的 性格」, 『대구사학』85, 2006.

백동인, 「신라 소지마립간의 신궁 설치와 친사」, 『신라사학보』42, 2018.

서보근, 「중국 동중서 사상과 유교 통치의 부활」,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2013

송기호, 「가뭄과 홍수」, 『대한토목학회지』58, 2010.

신선혜, 「신라 성덕왕대 禁殺生 下敎의 배경과 의미」, 『한국고대사연구』83, 2016.

신정훈, 「新羅 聖德王代의 정치적 변화와 성격 －成貞王后의 출궁과 炤德王后의 입궁에 대하여－」, 『한민족문화연구』24, 2008.

윤선태, 「新羅 中代末~下代初의 地方社會와 佛敎信仰結社」, 『신라문화』26, 2005.

이강래, 「고구려 멸망론의 설화적 파생」, 『한국 고대사 연구의 자료와 해석』, 사계절, 2014.

이강래, 「백제 멸망론의 설화적 파생」, 『한국사학보』77, 2019.
이기봉, 「新羅 聖德王代의 自然災害와 儒敎政治」,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_____, 「신라 경문왕대의 정국운영과 재이」, 『신라문화』39, 2012.
_____, 「신라 원성왕대의 재이와 정치·사회적 변동」, 『신라사학보』25, 2012.
_____, 「新羅 憲德·興德王代의 災異와 정치·사회적 영향」, 『역사와경계』100, 2016.
_____, 「신라 진성여왕대의 재이와 농민반란」, 『역사학연구』62, 2016.
_____, 「統一新羅時代 災異와 政治·社會 變動」,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_____, 「신라 혜공왕대의 薦擧와 災異」, 『신라문화』51, 2018.
_____, 「신라시대 鰥寡孤獨者等의 구제와 그 특징」, 『신라문화』54, 2019.
_____, 「신라 하대의 경제적 양극화와 재해」, 『신라사학보』48, 2020.
이현주, 「신라 효경의 수용과 활용」, 『한국사상사학』64, 2020.
이호영, 「新羅中代王室과 奉德寺」, 『史學志』8, 1974.
이희덕, 「三國史記에 나타난 天災地變記事의 性格」, 『동방학지』23-24, 1980.
_____, 「韓國古代의 自然觀과 儒敎政治思想」, 『동방학지』50, 1986.
_____, 「新羅時代의 天災地變」, 『동방학지』82, 1993.
_____, 「王道와 天災地變」, 『한국사연구』99-100, 1997.
_____, 「한국의 자연관自然觀과 유교정치사상」, 『국학연구』5, 2004.
전덕재, 「신라 왕경의 공간구성과 그 변천에 관한 연구」, 『역사와 현실』57, 2005.
_____, 「삼국과 통일신라시대 가뭄 발생현황과 정부의 대책」, 『한국사연구』160, 2013.
정동준, 「경제적 측면에서 본 고대사회의 진휼」, 『한국고대사연구』99, 2020
정재현, 「동아시아 자연관의 몇 가지 특성들」, 『동서철학연구』41, 2006.
조범환, 「新羅 中代 聖德王代의 政治的 動向과 王妃의 交替」, 『신라사학보』22, 2011.
채미하, 「新羅 宗廟制와 王權의 推移」,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_____, 「신라의 軍禮 수용과 왕권」, 『한국사연구』149, 2010.
_____, 「신라의 건국신화와 국가제의」, 『한국사학보』55, 2014.
최종성, 「용부림과 용부림꾼 :용과 기우제」, 『민속학연구』6, 1999.

《부록》

<부록 1> 신라 상대(박혁거세~진덕왕) 재이 발생과 그에 따른 국가의 후속 조치

시기	연월일 (왕)	재이 발생	국가의 조치	분류
이사금 시기	18년 07월 (남해차차웅)	황해+기근	진휼	실질적 조치
	28년 11월 (유리이사금)	추위+기근	진휼	실질적 조치
	75년 (탈해이사금)	가뭄+기근	진휼	실질적 조치
	108년 05월 (파사이사금)	홍수+기근	진휼	실질적 조치
	109년 07월 (파사이사금)	황충해	제사	상징적 조치
	114년 04월 (지마이사금)	홍수	사면	상징적 조치
	145년 (일성이사금)	가뭄	진휼	실질적 조치
	198년 05월 (내해이사금)	홍수	조세 면제	실질적 조치
	198년 07월 (내해이사금)	홍수	위로	실질적 조치
	200년 09월01일 (내해이사금)	일식	사열	상징적 조치
	201년 03월01일 (내해이사금)	일식+가뭄	사면	상징적 조치
	210년 (내해이사금)	가뭄	사면	상징적 조치
	226년 07월 (내해이사금)	가뭄+기근	진휼	실질적 조치
	253년 04월 (첨해이사금)	가뭄	제사	상징적 조치
	280년 04월 (미추이사금)	가뭄	사면	상징적 조치
	313년 07월 (흘해이사금)	가뭄+황충해	진휼	실질적 조치
	314년 02월 (흘해이사금)	가뭄	공사 중단	실질적 조치
	317년 (흘해이사금)	가뭄	사면	상징적 조치
마립간 시기	372년 (내물마립간)	가뭄	진휼	실질적 조치
	397년 07월 (내물마립간)	가뭄+황충해+기근	조세 면제	실질적 조치
	420년 07월 (눌지마립간)	서리+기근	사면	상징적 조치
	436년 04월 (눌지마립간)	우박	사면	상징적 조치
	438년 04월 (눌지마립간)	폭우+대풍+우박	권농 정책	실질적 조치
	480년 10월 (소지마립간)	기근	진휼	실질적 조치
	482년 04월 (소지마립간)	장마	사면	상징적 조치
	483년 10월 (소지마립간)	재해	위로+진휼	실질적 조치
	492년 (소지마립간)	가뭄	감선	상징적 조치
	497년 07월 (소지마립간)	가뭄+황충해	천거	상징적 조치

상대 왕시기	506년 (지증왕)	가뭄+기근	진휼	실질적 조치
	585년 03월 (진평왕)	가뭄	피전+감선+사면	상징적 조치
	589년 07월 (진평왕)	홍수	진휼	실질적 조치
	596년 10월 (진평왕)	화재	진휼	실질적 조치
	628년 (진평왕)	가뭄	제사	상징적 조치

<부록 2> 신라 중대(무열왕~혜공왕) 재이 발생과 그에 따른 국가의 후속 조치

연월일 (왕)	재이 발생	국가의 조치	분류
666년 04월 (문무왕)	화재	사면	상징적 조치
669년 05월 (문무왕)	기근	진휼	실질적 조치
670년 12월 (문무왕)	오성변(토성)+지진	중시 교체	상징적 조치
687년 04월 (신문왕)	성변	제사	상징적 조치
705년 10월 (성덕왕)	흉년	진휼	실질적 조치
706년 01월 (성덕왕)	기근	진휼	실질적 조치
707년 01월 (성덕왕)	기근	진휼	실질적 조치
708년 04월 (성덕왕)	오성변(토성)	사면	상징적 조치
710년 01월 (성덕왕)	지진	사면	상징적 조치
715년 06월 (성덕왕)	가뭄	제사	상징적 조치
715년 12월 (성덕왕)	유성	사면	상징적 조치
716년 06월 (성덕왕)	가뭄	사면	상징적 조치
725년 04월 (성덕왕)	우박	중시 교체	상징적 조치
745년 05월 (경덕왕)	가뭄	중시 교체	상징적 조치
747년 (경덕왕)	기근+전염병	위로	실질적 조치
754년 08월 (경덕왕)	황충해	중시 교체	상징적 조치
755년 (경덕왕)	기근	포상	상징적 조치
763년 08월 (경덕왕)	화얼(華孽)	중시 교체	상징적 조치
766년 01월 (혜공왕)	두 개의 해	사면	상징적 조치
769년 05월 (혜공왕)	황충해+가뭄	천거	상징적 조치
779년 03월 (혜공왕)	지진+오성변(금성)	백좌법회 개최	상징적 조치

<부록 3> 신라 하대(선덕왕~경순왕) 재이 발생과 그에 따른 국가의 후속 조치

연월일 (왕)	재이 발생	국가의 조치	분류
786년 09월 (원성왕)	기근	진휼	실질적 조치
787년 02월 (원성왕)	지진	제사	상징적 조치
788년 (원성왕)	가뭄+황충해	위로	실질적 조치
789년 01월 (원성왕)	기근	진휼	실질적 조치
790년 05월 (원성왕)	기근	진휼	실질적 조치
791년 10월 (원성왕)	대설	중시 교체	상징적 조치
794년 02월 (원성왕)	지진	중시 교체	상징적 조치
795년 04월 (원성왕)	가뭄	사면	상징적 조치
796년 (원성왕)	기근과 전염병	진휼	실질적 조치
797년 09월 (원성왕)	황충해+홍수	중시 교체	상징적 조치
814년 05월 (헌덕왕)	홍수	위로+조세 면제	실질적 조치
814년 08월 (헌덕왕)	바람과 안개	중시 교체	상징적 조치
817년 05월 (헌덕왕)	가뭄	제사	상징적 조치
817년 10월 (헌덕왕)	기근	진휼	실질적 조치
827년 08월 (흥덕왕)	태백성변과 가뭄	중시 교체	상징적 조치
831년 01월 (흥덕왕)	지진	중시 교체	상징적 조치
832년 (흥덕왕)	가뭄	피전+감선+사면	상징적 조치
832년 10월 (흥덕왕)	기근	위로	실질적 조치
844년 2-3월 (문성왕)	우박	중시 교체	상징적 조치
859년 (헌안왕)	기근	진휼	실질적 조치
873년 (경문왕)	기근과 전염병	진휼	실질적 조치
902년 03월 (효공왕)	서리	중시 교체	상징적 조치

<ABSTRACT>

National measures and their political functions against the occurrence of Disasters and Extraordinary Events(災異) in the Silla Dynasty.

Shin Ji-won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 Korean Culture
Graduate School
University of Ulsan

Not only do disasters and extraordinary events have impacts on the life and living of people, but they are also connected ultimately to the future of the royal family and national fate, which is why the rule was held accountable for disasters and extraordinary events. Kings took measures against disasters and extraordinary events. Some strange natural phenomena were followed by follow-up measures, and others were not. The differences derived from the awareness of the special meanings that abnormal phenomena held for the human society. This study thus focused on the records of disasters and extraordinary events against which the government took responsive measures.

In the study, national measures against disasters and extraordinary events were divided into two types: practical measures were relief measures for people that suffered direct damage due to disasters and extraordinary events and included the relief of famine, tax reduction, consolation, and encouragement of agriculture policies; and symbolic measures were indirect measures to show the government's reflection and included pardon, inspection, suspension of construction, and memorial ceremonies such as rituals for rain.

These measures were further divided by the period to check changes to the patterns of measures against disasters and extraordinary events in each period. During the Isageum period in the early days of Silla, most measures against disasters and extraordinary events targeted drought and flood damage that caused

damage to farming. During the Maripgan period when the royal power was further reinforced than before, the kings began to take the lead in measures against disasters and extraordinary events such as Gamseon and Cheongeo. These measures against disasters and extraordinary events appeared after Soji Maripgan implemented a policy to arrange Wanggyeong, which indicates that the changes to the patterns of measures against disasters and extraordinary events were connected to a series of effort to reinforce the royal power. This was demonstrated during the reign of King Jinpyeong, as well. The Silla government took measures against disasters and extraordinary events after the king set his era name. The periods of measures against disasters and extraordinary events carried out by two kings in the early days of Silla show connections between the efforts to reinforce royal power and the implementation of measures against disasters and extraordinary events.

During the middle period of Silla when kings enjoyed powerful royal authority, not only did the frequency of measures against disasters and extraordinary events grow, but measures were also taken against extraordinary phenomena. They were the outcomes of social perceptions being spread and reinforced for disasters and extraordinary events. Despite these developments, however, measures were selective against disasters and extraordinary events. The study examined the cases of measures against disasters and extraordinary events by four kings and looked into their political and social backgrounds, finding out that all of the measures against disasters and extraordinary events were taken to reinforce or maintain royal power. When disasters and extraordinary events took place, they were used as an opportunity to show how generous the king was with his benefits for people or highlight once again the ideas of loyalty and filial piety emphasized those days. These findings demonstrate the political functions of measures against disasters and extraordinary events and show that the idea of disasters and extraordinary events derived from political ideas.

Keywords: Silla, *Samguksagi*, disasters and extraordinary events, idea of disasters and extraordinary events, Confucian political idea, measures against disasters and extraordinary events